

성막의 실체

"보다 나은 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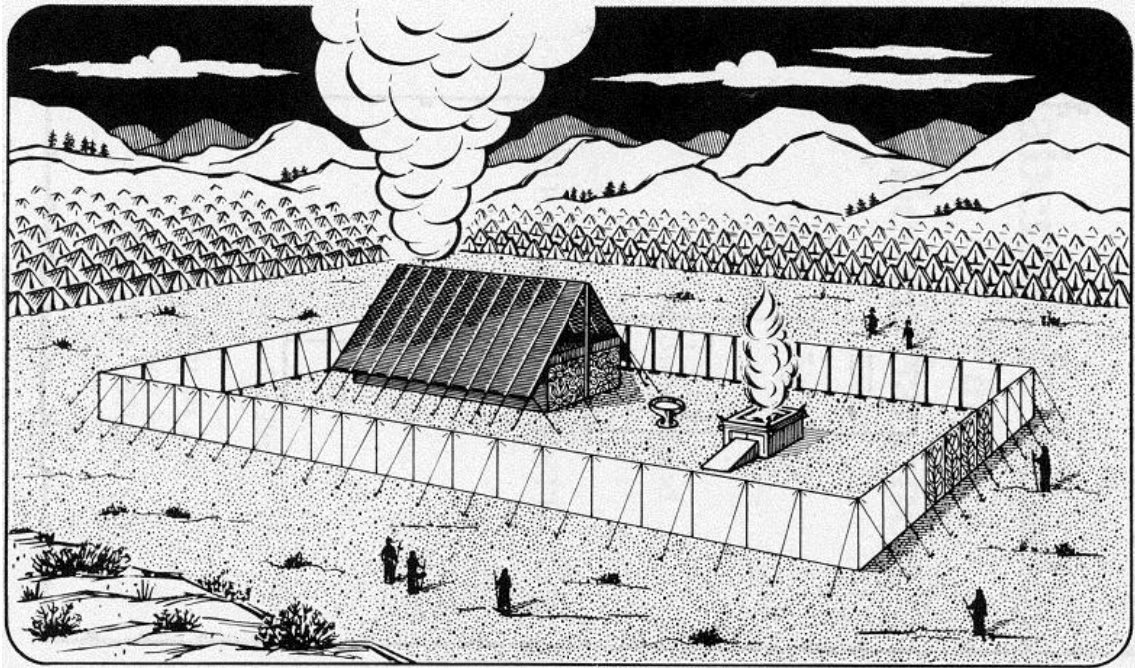
찰스 티. 러셀 (Charles T. Russell)

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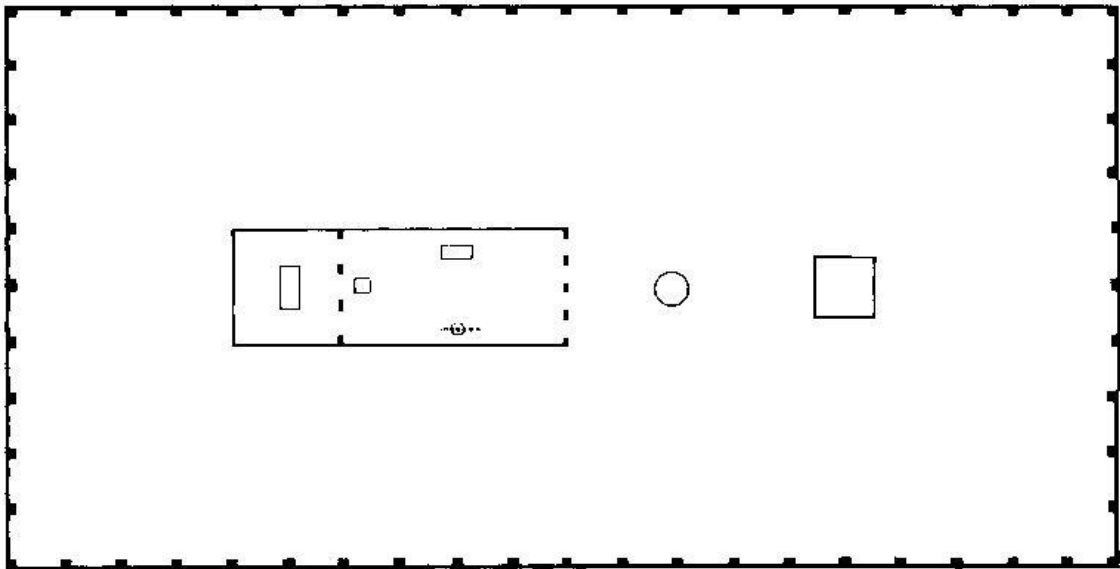
이성환 grandottica@hanmail.net

김호영 delugenr@naver.com

성막의 실체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광야에 세운 성막)



TABERNACLE AND COURT (성막과 성막 뜰)

성막의 실체 "보다 나은 희생"

왕겸 제사장들을
위한
도와주는 손가락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왕 중의 왕 주종의 주이신 주님께 드림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물
.....을 위하여

이 책을 바친다.

“정해지지 않은 과거로부터 하나님 안에 숨겨져 온 신성한 비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모든 지혜와 분별력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
하게 하셔서, 그의 뜻의 신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속으로 의도하신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서,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찼을 때에 있을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 안에서”

엡 3:(4,5,)9, 1:8-10

1881 찰스 티. 러셀 (Charles T. Russell)

저자의 서문

이 소책자의 초판은 1881년에 발행되었는데, 한 계급--"왕 겸 제사장직"--의 사람들을 특별히 목표로 한 이 책이 하나님의 축복아래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 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그들에게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고 인식하지 못했던 구약의 전형들의 뜻을 지적해 주고, 따라서 성서의 성언들, 곧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의 잔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장막에서 나와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그에게 도달하자." 이외 "현재의 고통[을 당하고] 뒤따를 영광[을 받는]데"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자신과 관련한 많은 성구들을 깨닫게 지도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자기희생 하는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것이 진실로 참말임을 기뻐하며, 이번 개역판에 신성한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한다. 개역판이 필요한 이유는 이전 출판의 전지판이 낡아진 점과 성서연구 시리즈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성서연구 시리즈 5권에 첨가나 속편으로 온당히 고려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분리시키기로 하였다.

개역판은 인쇄술의 변경, 새로운 장의 추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될 수 있는 한 명료하게 하기위한 몇 가지 표현상의 변경 외에는 변경이 없다. 실로 특별한 변경들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 안에 진술된 주제들의 이해는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하고 명확한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늘에서 지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이 보인다.

이소책자에 제공된 도움들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마찬가지로 아직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리라고 우리는 확신하다. 왜냐하면 저자는 모든 사실들과 적용을 주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려고 추구하였으며 아무것도 저자 자신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의 말씀과 영을 통해서 받은 대로 그는 같은 것을 --증거와 더불어-- 제공하였다.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

주님의 깊은 성서연구생들은 이 안에 진술된 전형들의 적용이 정확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확증되었다. --먼저 교회를 위한 의롭다함을 선언, 거룩하게 함, 영광스럽게 함. 그리고 차후에 땅의 모든 족속의 원하는 자들을 위한 회복-- 정말이지 그러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열쇠이다!

독자 여러분, 만약 이 안에 진술된 내용들이 당신들에게 진리로 마음에 끌리면, 이것이 반드시 당신들의 정력과 열의를 일깨워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축복하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소유하신 위대한 "대제사장"과 곧 연합될 왕 겸 제사장들의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늘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육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진리의 축복을 받고 그 영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영적으로 새 힘을 주는 잔을 어렵פות한 마음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같은 자극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할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전도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 소책자들을 액면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참"하여 이 봉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형제이자 종인 Charles T.
Russell 찰스 T.러셀

차 례

제 1 장 전형의 성막

진영 -뜰 -성막 -구리단 -물두멍 -상 -등대 -금 향단 -속죄소 -궤 -문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이것들의 의의와 전형의 실제들을 알아봅시다.....10

제 2 장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직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들로 상징된 모든 인류의 계급, -제사장들 기름부음 --대제사장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복"의 의의를 전형적으로 고찰 -아브라함의 언약, 율법 언약 그리고 예시된 새 언약.....21

제 3 장 제사장 위임식 레위기 8:14-33

하나님 섬김을 위해 갈라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위임식 수소들과 숫양들 -위임식 기름부음용 기름.....29

제 4 장 위대한 "속죄일" 레위기 16:3-33

전형의 순서와 그것의 실제의 의미 -수송아지 -제사장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 -분향과 향내와 악취 -지성소에 들어감 -주의 염소 -아사셀 -백성들을 축복.....36

제 5 장 속죄 희생들의 또 다른 전형 레위기 9장

속죄 희생들이 각기 다른 세부들로 다시 진술되었음 -모세와 아론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 -속죄제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명시되었음.....54

제 6 장 "속죄일" 이후에 뒤따르는 희생들

이러한 전형들은 천년통치기간에 있을 회개들, 서약들, 언약들, 등을 상징 -백성들의 번제 희생 -그들의 화목 희생 -그들의 소제 예물 -그들의 속건 희생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끝남이 전형에 나타내졌음62

제 7 장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히브리서 9:13

속죄일 희생들 중 하나가 아님 -백성을 위한 속죄일 후의 희생들 중 하나가 아님 -이 희생으로 상징된 계급 -실체에 관하여 목격하고 증거 하는 하위 -제사장 사도바울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재를 뿌리는 일은 천년통치 기간에 있을 것이다. -죄를 씻는 일이 어떻게 성취 될 것인가.70

제 8 장 다른 중대한 모형들

성막 뜰 기둥 -하얀 휘장 -은 갈고리 -성소와 지성소의 문기둥들 -금으로 입힌 상 -금 등잔 -깊은 것들을 보는 실상의 제사장들과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레위인들 -금 향단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것의 내용물과 그들의 의미 -속죄소 -두 그룹천사 -흠 없는 제사장--만세에 숨겨온 비밀.....75

성막의 실체 보다 나은 희생

제 1 장

전형의 성막

진영 -뜰 -성막 -구리제단 -물두멍 -상 -등대 -금 향단 -속죄소 -궤 -문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이것들의 의의와 전형의 실체들을 알아보시다.

하나님께서 신(Sin) 광야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설하라고 명하신 장막과 그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종교적 제사와 의식이 행해진 것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시킨다.(히 8:5: 10:1; 골 2:17) 사실상 그들의 율법, 그들의 종교적 제사와 의식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은 상징적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므로 그들의 미래에 있을 진전뿐 아니라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계획과 행사들에 대한 우리(교회)의 이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복음시대에 그것들의 실체가 소개될 때 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복하게 하신 그 "그림자들"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뵤전 1:11; 히 10:1-3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인의 형식들, 의식들 그리고 경배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데 있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의 **실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림자의 일정일획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면밀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림자에 충분한 비중과 중요성을 관련시키지 못할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막의 도해를 주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것에 주의하라 지시하셨다."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출 25:40) 또한 예식의 세목에 관해서도 전형에서 일정일획이라도 정확히 수행되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예식의 세목이 나중에 올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의 예증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그림자들이 모두 정확히 이행되고 소홀히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위반에 대한 처벌은 흔히 죽음이였다. -그것을 예시한 성구들- 출 28:43; 민 4:15,20; 17:13; 삼하 6:6,7; 레 10:1,2

"그림자"를 만드신 점에 있어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으면 그것의 일정일획이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 확실해질 뿐 아니라,(마 5:18) 그림자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이끌 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더 큰 관심이

볼러 일으켜질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즉 영으로 잉태된 --자녀들 가운데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라는 약속이 확신되어있기 때문이다.

성막의 건설

성막의 건설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설계는 출애굽 25장-27장에서 그리고 그 공사 수행의 기술은 출애굽 35장-40장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히 진술한다면 성막은 금으로 입힌 일련의 아카시아 널빤지들로 건설되었고 널빤지 끝이 은 받침에 꽂히고, 역시 금으로 입힌 같은 나무로 만든 빗장들로 견고하게 고정되었다.

이 구조물은 넓이 15 피트(458cm), 높이 15 피트 길이 45 피트(1372cm)이고, 전면 또는 동쪽 끝이 터져 있다. 이 터진 동쪽 끝은 청색, 붉은 보라색, 진홍색 실로 그룹천사 형상이 수 놓여있는 넓은 하얀 아마포 천으로 막혔다. 이 구조물의 터진 전면 또는 동쪽 끝은 "문" 또는 **첫 번째 휘장**이라 부르는 막는 천과 유사한 물질로 만든 커튼으로 닫혔다. "휘장" 또는 두 번째 휘장이라 부르는 유사하게 그룹천사 형상이 수 놓여있는 같은 물질로 된 또 하나의 천이 위에서 내려뜨려져서 성막을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또는 더 큰방은 넓이 15피트이고 길이 30피트인데 이 방을 "성소"★라고 부른다. 두 번째 또는 후면에 있는 방은 넓이와 길이가 모두 15피트인데 "지성소"라고 부른다. 이 두개의 방은 성막 구조물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구조물을 가리기 위해 천막이 외곽에 둘러져 세워졌다. 이 천막은 카시미어 천이나 염소 털로 된 덮개와 붉게 물든 숫양가죽으로 된 덮개와 또 하나는 물개가죽으로 된 (종종 오소리 가죽으로 오역됨) 덮개로 만들어졌다.

성막 뜰(앞마당) 또는 HOLY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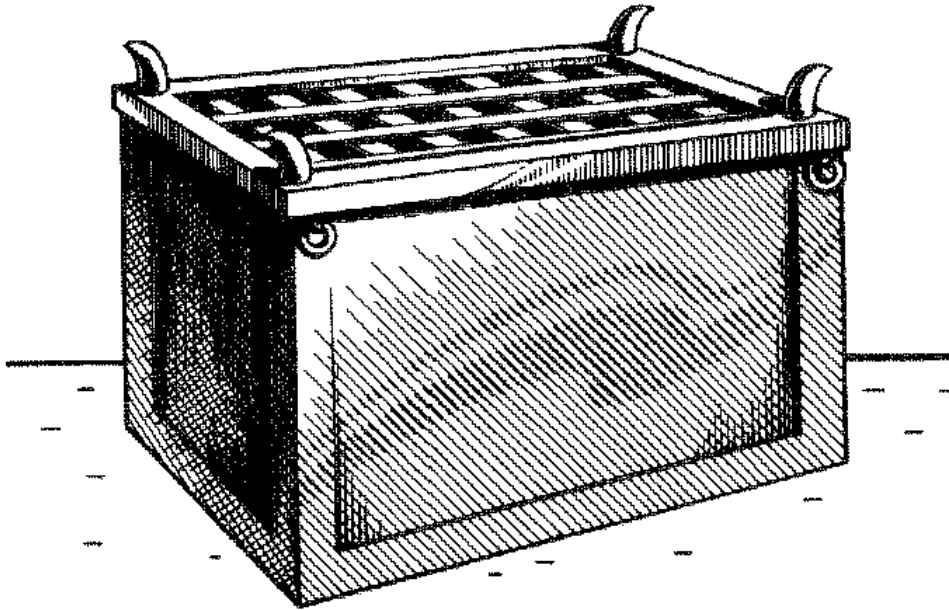
성막은 마당 혹은 뜰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막은 뒤쪽에 세워졌다. 이 성막의 뜰은 넓이 75 피트(23m) 길이 150피트(46m)였으며, 포장의 울타리로 둘러졌다. 세마포 담은 높이가 7.5 피트 되는 나무 기둥 끝에 박힌 은고리에 매달려있다. 그 나무기둥은 무거운 구리(놋으로 오역되었음) 받침들에 박고, 성막을 덮은 막 곧 양장을 고정시킨 것 같이 밧줄과 말뚝으로 고정시켰다. 이 울타리로 막은 땅은 전부 거룩한 장소이며, 그래서 "거룩한 뜰" --또한 "성막의 뜰"이라고 불리었다.

성소의 뜰의 입구는 성막의 문처럼 동쪽방향을 향하여 있으며, "문"이라고 부른다. 이 "문"은 하얀 세마포에 청색, 자색과 보라색으로 수놓아져 있다.

* 영어번역판들에서 "Holy"를 자주 'Holy place'라고 그릇 부른다. 이런 경우에는 place가 번역자에 의해서 추가되었음을 지적하여 이탤릭체로 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출 26:33에서와 같다. "뜰"이 'Holy place'라고 적절히 불리기 때문에 이 틀림은 아주 혼동을 준다. 그리고 place가 이탤릭체가 아닐 때는 항상 "뜰"을 의미한다. (예; 레 14:13; 6:26,27) 어떤 경우에는 "성소"가 "희막"이라 칭해진다.

"지성소"도 때로는 'Holy place'(place를 이탤릭체로 하여)라고 역시 불린다. (예; 레 16:17,20,33) 이 방들을 언급할 때, 우리는 각개를 "**뜰**", "성소", "지성소"라고 부른다. 학생에게 혼란을 가중시켜온 가지가지의 번역들은 이 까닭이다. 곧, 전형의 상징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의 결핍과 레위기 번역자들의 균일한 정확성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결핍하기 때문이다.

주의해 볼 것은 세 개의 출입구, 즉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문"과 "성소"로 들어가는 "문(첫 번째 휘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두 번째 휘장)"이 같은 천과 같은 색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성막과 "성막의 뜰"의 바깥쪽은 이스라엘백성들의 **진영**이라고 부른다. **진영**의 사면은 상당한 거리로 두고 둘러싸여 있다.



THE BRAZEN ALTAR (구리단)

설비품들

"뜰"의 설비는 단지 두 주요 설비품만으로 되어있다, 곧 "구리제단"과 "구리 물두멍"이다. --각각에 따르는 도구들과 더불어.

성막의 문 바로 안에 "구리로 만든 단"이 세워있다. 이 단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구리로 덮여있다. 7.5피트 정방형이며 높이는 4.5피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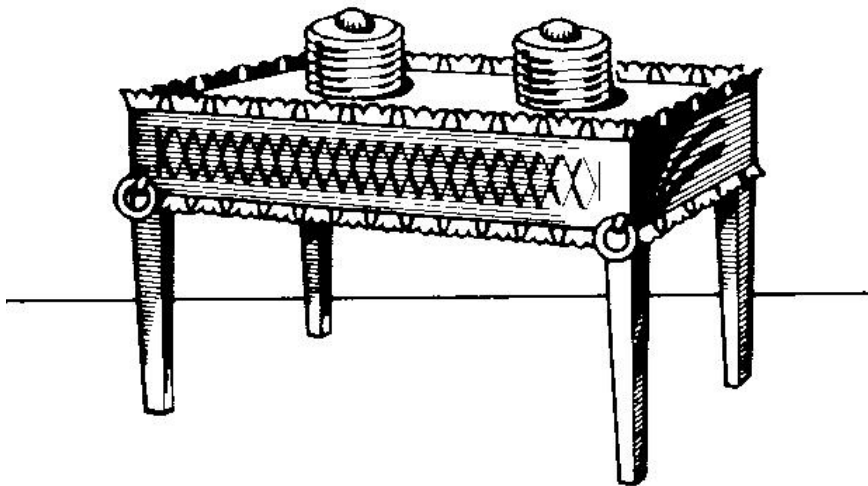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예식에 사용된다.-불 향로(분향 단까지 불을 나르는 도구),대야들(동물의 피를 받는 도구), 고기 갈고리, 부삽 등.



THE LAVER (구리 물두멍)

물두멍

구리단과 성막의 첫 번째 문 사이에 물두멍 이 있다. 이것은 닦아 윤을 낸 구리로 되었으며 물을 담는 용기이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손을 씻었다.



THE TABLE OF SHEW-BREAD (진설병의 상)

진설병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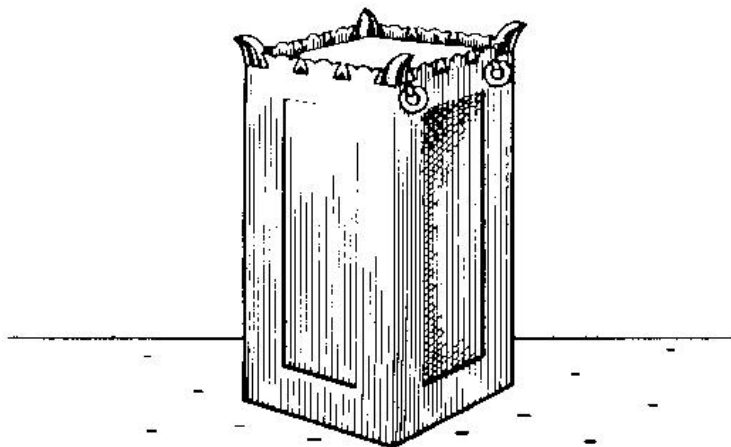
성막의 설비들은 "성소"안에 "상", "등대", "분향 단"과 "지성소"안에 "언약궤"로 구성되었다. 성막 안에 첫 번째 방 즉 성소의 오른쪽(북쪽)에 진설병의 상이 놓여있다. 이것은 금으로 입힌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 상위에 열두 무교병을 두 더미로 나란히 놓고, 각 더미 위에 유향이 얹혀있다.(레 24:6,7)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있고, 거룩한 것이며, 매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진다.



THE GOLDEN CANDLESTICK (금 등대)

금 촛대 또는 금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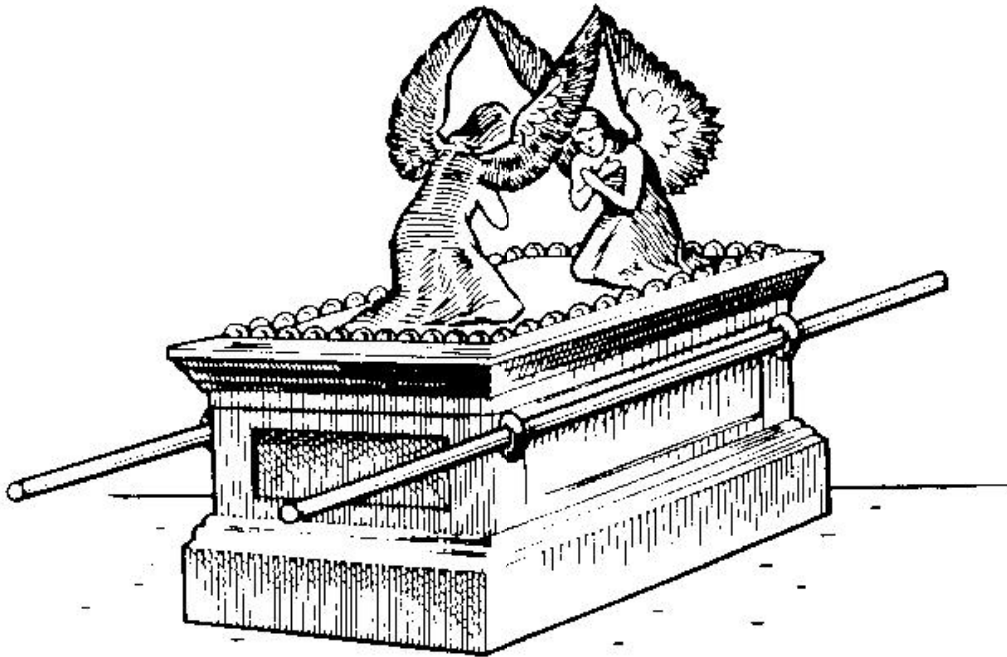
"진설병의 상" 맞은편에는 "등대"가 놓여있다. 이 등대는 정금을 두드려 쳐서 만들어졌으며, 일곱 가지가 있고, 각 가지에는 등불이 있다. 이 등불은 "성소" 안의 유일한 불빛이었다. 왜냐하면 자연광이 벽들과 휘장들로 가려지고, 성소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등대의 일곱 등불은 대제사장이 금 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할 때 마다 자신이 정리하여, 심지 끝을 자르고 기름을 채워준다.



THE GOLDEN ALTAR - THE INCENSE ALTAR (분향 단)

분향 단

더 앞쪽으로 “두 번째 휘장” 가까이 앞에 “금 향단” 또는 “분향 단” 이라고 불리는 금으로 입힌 나무로 만든 작은 단이 세워있다. 분향 단은 평상시에는 불이 피워져 있지 않고, 제사장들이 향로에 담아 가져온 것을 금 향단 위에 놓고 향을 그 위에 부스러뜨릴 때만 불이 피워지며 부스러진 향이 타면서 향기로운 향냄새를 풍기게 하며, 향냄새가 “성소”를 가득 채우고 “두 번째 휘장”을 넘어 스며들어 “지성소”, 곧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까지 드리운다.



THE ARK OF THE TESTIMONY (언약궤)

언약궤

"두 번째 휘장"너머 "지성소"에는 단 하나의 설비품 --"증거 궤"-- 밖에 없었다. 이것은 금으로 입힌 정방형 나무상자이고, 정금으로 만든 뚜껑 즉 덮개로 덮였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다. 속죄소 위에는 정금을 망치로 쳐서 만들어진 두 그룹들이 있었다. 속죄소 밑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비석들이 있었다.(히 9:4)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는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성한 존재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성소"의 유일한 빛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설비품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거나 입혀진데 반하여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은 구리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런 금속으로 입힌 나무를 사용한 것은, 물품을 가볍게 해서 정금으로 된 것들 보다 더 쉽게 운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것은 그들이 이동하는데 중요한 고려였다.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솔로몬)성전의 설비품들은 정금으로 되어있다. (왕상 7:47-50)

이 두 가지 금속(금과 구리)이 사용 된 것은 두 다른 본성을 상징하기 위해서였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구리는 천사의 본성보다 조금 낮은, 완벽한 상태의 인간본성을 상징하고, 금은 천사와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나는 신의 본성을 상징한다. 금과 구리는 외관상 매우 비슷하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인간본성은 지상 환경에 적응된 신의 형상과 모양이다.

진영, 성막 뜰, 성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뚜렷하게 분리되고 구별된 진영과 성막 뜰과 성막은 속죄로 축복을 받은 세 개의 독특한 계급을 상징 하고 성막의 두 부분은 이 계급들 중 한 계급의 두 가지 상태를 상징한다.

"진영"

진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인류의 상태를 상징한다. 세상은 그것의 갈망과 탄식을 아무리 희미하게 분석하는지 모를지라도 속죄와 그것의 축복을 갈망한다. 전형에서 진영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이 진영은 하얀 세마포 포장에 의해서 모든 거룩한 것들로 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세마포 포장 안의 사람들에게는 포장이 믿음의 벽을 의미하고, 포장 밖의 사람들에게는 불신의 벽을 의미하며 이 불신의 벽이 거룩한 것들을 보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가로 막았다.

"거룩한 장소" ["성막 뜰"]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였다. 따라서 이 전형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문", 곧 예수님 --뿐임을 증언해준다. "나는 곧 길이요...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 나는 문이니" (요 14:6; 10:9)

"성막 뜰"

"성막 뜰"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 곧 "문"을 통하여 시작된 의롭다함을 입은 상태를 상징한다. 이 "성막 뜰"에는 레위인들(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들의 전형) 만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들은 "구리단(번단)"과 "구리 물두멍"에 접근하여 "성막 뜰"에서 정례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단지 레위인들(신자들)의 신분으로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그 안을 들여다 볼 권한이 없었다(민 4:19,20) "성막 뜰" 안의 모든 것들은 구리로 되었는데 이는 거기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은 계급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제사장들도 희생들을 드리고 몸을 씻을 때에 "성막 뜰"을 함께 사용하였지만, "성막 뜰"은 복음시대에 영적계급의 상태를 상징하지 않았다.

"성막"

두 부분으로 건설된 "성막" 건물은 인간 본성에서 영적 본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고 있는 모든 자들의 두 가지 **상태**를 상징한다. 첫 번째 방인 "성소"는 (레위인들, 곧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벧후 1:4)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죽을 때 까지 헌신한 모든 자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두 번째 "휘장"을 넘어 두 번째 방인 "지성소"는 신의 본성을 얻을 충실한 "이기는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들은 자신의 헌신생활을 죽음으로 마친 후에 첫째 부활로 죽음에서 신의 본성과 신의 유기체로 태어나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에서 거저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완벽하다고 간주되었을지라도 인간존재로서는 아무도 성막이나 성전내부에서 상징된 신령한 것들에 대한 자격이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그는 영적 사물들을 감지하는 의미에서 살펴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복음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헌신하여 그들의 인간적 본성을 하나님의 봉사에 희생으로 바치고,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신의 본성을 상속을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14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금이 신의 본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의 상태를 상징하였음을 암시한다. 희생의 일을 하기로 성별된 레위인들 중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막에 접근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친족이 된 사람들 중에 죽을 때까지 희생하도록 성별된 사람들만이 성막으로 나타내진 신성한 상태가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인 "성막 뜰"에는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을 보유해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생명의 본성의 변화를 체험하려하고, "새로운 피조물",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참여자" "신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고자 한다면 믿음을 보유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의 봉사에 온전히 헌신하여 영으로 잉태되어 신의 본성의 상을 받기위한 경주에 첫 출발을 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 경주의 조건들은 우리의 서약에 충실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인간의 의지와 몸을 하나님께 산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다. 다시는 육적인 쾌락과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늘로 향한 추진에는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되는 것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첫 번째 휘장)을 여셨으며,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의 희생에 의해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고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인 성막의 두 방은 성령으로 잉태된 두 단계의 새로운 생활을 상징한다.

"성소"

"성소"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낳은 그들의 현 상태를 상징한다.(약 1:18)

여전히 "육체 안"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들은 첫 번째 휘장 안에서[헌신을 의미], 세상과 헌신하지 않은 신자들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저쪽에서 진정한 내적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들은 "금촛대"의 내적 빛을 즐긴다. 반면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바깥 어둠" 가운데 거한다. 이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진설병"으로 상징된 특별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며 금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피운다.

"지성소"

"지성소"는 죽기 까지 충성해서 첫째 부활에(계 20:6) 참여함으로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큰 상을 얻는 새 피조물들의 완벽하게 된 상태를 상징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두 휘장(곧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몸)을 넘어서 영적 마음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두 번째 휘장을 넘어 우리의 구세주로서 휘장 저쪽으로 들어 가서, 이 새롭고 산 길, 혹은 생명의 새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 주신 그들의 지도자이자 선구자와 같게 될 것이다.(히 10:20; 요일 3:2)

"성소"에 있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피조물들은 찢어진 "두 번째 휘장"을 통해 "지성소"를 믿음으로 바라 들여다보며 육체를 버린 후에 얻게 될 영광과 영예와 불멸성을 훑듯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소망은 영혼을 위한 닻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여 두 번째 휘장 안에 들어간다. 히 6:19; 10:20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데 우리의 첫 단계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롬 5:1) 우리 죄가 용서되었을 때, 혹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것으로 여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간들**이다 - 즉 "성막 뜰"에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면, 그리고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이시며 머리이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제장**"[즉 우리의 제사장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 "왕 겸 제사장" 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히 3:1; 뱀전 2:9)

예수의 발자취

우리의 지도자이시며 머리이신--"우리를 소유하신 대제사장" [i.e. 우리의 제사장 반열의 대제사장] "왕 겸 제사장" 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발자취. 히 3:1; 뱀전 2:9

(1) 구리 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속죄제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막 뜰"의 "문"으로 들어간다. --불신앙과 죄의 포장을 지나간 것이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전혀 밟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성막 뜰 바깥 상태에 결코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2)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의 뜻 혹은 의지와 우리의 모든 인간적 열망과 희망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적 마음의 휘장인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간다. --인간의 뜻을 죽은 것으로 치고 여기서 부터는 인간의 뜻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

는다. 우리는 이제 "성소"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즉 하늘의 환경의 첫 단계에서 "금 등대"(하나님의 말씀)로 인해 영적인 것들("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관해 밝혀지기 시작하고, 다만 제사장에게만 먹도록 허락된 "진설병"으로 상징된 진리로써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화되기 시작한다(마 12:4)는 것 --을 알게 된다.(엡 2:6--Diaglott)

따라서 새롭게 되고 강화되었으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금 향단"에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아버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향이다. 벰전 2:5*

이렇게 모든 성도들, 곧 모든 헌신한자들은 현재 "하늘의 환경" 또는 "거룩한" 상태에 있다. 즉, 두 "하늘의 환경"의 첫째 상태["성소"]에 앉았다.[안식하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사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성소"(가장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휘장을 먼저 통과해야한다.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한 것은 인간적 뜻이나 **의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이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는 것은 **육적 몸의 죽음**을 상징한다. 둘 다 우리의 "**희생**"을 완성하기위한 필요조건이다. 우리가 "지성소"["가장 거룩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신의 본성과 그것의 영적 상태의 참여자들로서 완전케 되기 전에 --육체적인 마음과 몸 둘 다 뒤에 남겨야 한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전 15:40. 요 3:5,8,13 과 비교할 것.

이 세 가지 장소들, 곧, "진영", "성막 들" 그리고 "성막"으로 상징된 세 가지 상태에 관한 이 견지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다음 장에서 이러한 상태에 속하는 세 계급을 특히 살펴볼 것이다. 살펴볼 세 계급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직으로 각기 전형된 불신의 세상,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 그리고 성도들 즉 하나님께 헌신한 신자들이다.

* 이 성구에서 **영적인** 이라는 단어는 가장 오래된 히랍어 사본인 시나이 사본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정확히 적절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권리와 특권과 생명 등이 희생되어야 한다.

성막

이것은 얼마나 적막하고 신비로운 거처인가.
 흠 한 점 없는 새하얀 장막으로 둘러싸이고,
 낮에는 광야에서의 단이요
 밤에는 평야에 침묵의 파수꾼이러니?

세속의 사람들과 이방인에게는 받아드려지지 않는
 그 헌신된 장막 안에 누가 거하는가?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소와 염소"의 피를 뿌릴 때
 누가 회답하는가?

너희는 전능한 자의 이름을 생각할지어다.
 자주 반복되는 의식을 헛되이 요구하시겠느냐?
 그저 공허한 향기로, 수놓은 겉옷으로, 단의 불빛으로
 헛되게 만족하시겠는가?

아니다. 진실로! 진기한 수놓은 비단도
 금, 동, 금으로 만든 그릇들도,
 의식적인 제사의 격식도
 여러 번 예언했던 모든 복음의 "보다 나은 것"들이도다.

경건한 주시로 분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모형과 그림자인지" 희미하게만 찾아내니:
 그의 예물이 금 향단에 탈 때
 "거룩한 곳"의 비밀들을 알아내도다.

"피로 얼룩진 속죄소위에 앞서가신 그분에 의해서 보증된
 속죄를 그분은 들려준다.
 그리고 아버님은 빨리 열린 하늘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내시리니.

제 2 장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직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들로 상징된 인류의 계급, -제사장들 기름부음 -대 제사장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복"의 의의를 전형적으로 고찰 -아브라함의 언약, 율법 언약 그리고 예시된 새 언약

성막의 구조와 설비와 이들의 상징적 의의에 대해 명백한 이해를 얻는 것 뿐 아니라 거기에 관계자들에 대한 얼마간, 그리고 그들의 전형으로서의 의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서 쓰인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사하라는 하늘의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 자녀들의 전형이었다.

광야의 여행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라고 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루한 나그네 길의 세월을 상징한다. 전형에서와 같이 실제에서도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즉시 들어가기에 족한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의 안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충분한 예비를 해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까닭에 안식을 찾으려는 그러나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신광야의 각지를 여행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헤매었으나 믿음의 결핍 때문에 안식의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쓰인 반면에, 다른 면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막에 관련하여 지름 검토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전형(상징물)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의심의 여지없이 **세상 전 인류**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이스라엘만)을 위해 디자인 된 속죄희생, 희생, 속죄, 등은 "더 나은 희생"과 전 세상을 위하여 마련된 속죄를 상징하였다. 기록되기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요일 2:2; 히 9:23

한마디로 성막, 제사장들,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형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징으로 행해진 것은 그리스도의 첫 강림 이래, 전형(그림자)의 실체로서 보다 높은 단계에서, 보다 큰 규모로 실행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같이, 레위지파는 "믿음의 가족들" 즉 예수와 그의 속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상징한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밑에 한 몸인 제사장은 "적은무리"의 상징이고, "머리"이신 "대제사장"과 더불어 왕 겸 제사장직이다. 왕 겸 제사장직의 구성원들은 현재 희생하는 시대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왕 겸 제사장**들이 되고 땅을 통치하게 된다.(계 5:10)

이렇게 보아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는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게 된다.(히 3:1; 4:14) 아론의 반차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직분 혹은 반차, 곧 실제의 제사장의 머리의 전형에 불과하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통을 주로 상징하며, 그의 미래에 있을 영광, 멜기세덱 --왕 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전형 --보다 열등하다.

그러나 하위제사장들[왕 겸 제사장직, 곧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머리와 연합되어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전형의 실제의 희생을 같이 부담하며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여야"**한다. 디모데 후서 2:12절에서 볼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케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연설할 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도...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왕 겸 제사장이요.**" (벧전 2:5,9)

그들은 선교사나 신학 박사가 아니라도 모두 진리의 봉사자(종)들이다. 그리고 각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히 여겨지기 전에 각기 자기희생을 담당해야 한다. 오직 그와 함께 고통 받은 자만이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약속이 있다. 롬 8:17

이 제사장직["적은무리"]의 머리아신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 반복 언급되어 있는데 오직 인용 하나만 쓴다: "그러므로 함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왕 겸 제사장"]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

우리가 이제 전형의 제사장의 임명을 고찰하고자 할 때 제사장 직분이 제정되기 전에 레위지파(모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들의** 전형)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전형의 실제에 있어서 **"왕 겸 제사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심과 함께 시작했다.(창세 당시, 눅 3:22; 행 10:38)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신자들은 훨씬 이전부터 살았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롬 4:2,3) 그의 생애에 전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로서 레위지파로 상징된 "믿음의 사람들"의 성원이었다.

그러나 이 반차의 우두머리, 곧 대제사장 반차가 창시되고 그 직위로 임명된 후까지, "왕 겸 제사장"은 아무도 선택 되지 않았다. 그 이래 지금까지 하위제사장의 창시와 임명이 그리스도교의 경륜 또는 복음 시대의 특별한 업무였다. 따라서 지금 임명되어 자신들을 희생에 바치며 헌신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왕국의 왕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지상의 모든 가족들의 축복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의 성직수임과 제사장의 일에 관하는 어느 의식에서나 대제사장이 첫째였다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와 같이 실제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예수께서 **첫째** -지도자, 우두머리, 선구자(선두로 달리는 자) -이셨다. 이것은 아무도 그분을 **앞서오지** 않았음을 명확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선지자나 예언자는 아무도 "적은무리", "왕 겸 제사장", 다른 말로 "신부", "어린양의 아내"에 속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들은 주의 종으로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봉사는 제사장들의 봉사만큼 그렇게 굉장한 고위직이 아닐 것이며, 그들의 영예도 그렇게 존엄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에게서 상징된 것같이 그들의 미래의 직무와 영예는 분명코 고귀할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불멸성)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열려지지 않았다. 그 좁은 길에서 걸은 첫 사람은 그분이셨다. 그는 "생명과 불멸성에 빛을 비추셨다." (딤후 1:10) 그리고 모든 충실한 신자들(레위 사람)은 영생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스라엘 진영"으로 상징됨)도 역시 만일 그들이 천년통치 시대에 영생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의 관심사를 희생하며, 이렇게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롬 2:7) 이겨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따르는 제사장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원래 소유하셨던 "불멸성" 이라고 부르는 "끝없는 생명"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 제 10장과 11장 참조.

기름 부음

율법 아래서,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봉사 직에 임명될 때 행해진 의식이였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관유"라고 부르는 특별한 향유로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직분에 임명되었다. 이 기름은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었다. (출 30:25-33,38) 이 기름은 실체의 "왕 겸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는 입양의 성령을 상징한다. 오직 헌신한 사람들만, 곧 제사장들만이 언제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전형의 대제사장 아론은 머리와 몸의 구성원으로 된 교회의 합체인 예수님 -- 위대한 전형의 대제사장 실체 --를 상징한다. 아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직 죄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신 전형의 실체인 예수님과 그분의 귀중한 피로 인하여 그리고 말씀의 물로 깨끗함을 받은 교회의 순수함을 적절히 표하기 위하여 몸이 씻겨야 했다. 엡 5:26

몸을 씻은 후에 아론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의복으로 갈아입었다.(출 28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출 29:7) 이러한 영화로운 의복에 있는 각각의 소품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그분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미래의 날을 내다보시며 인식하신 대로 위대한 구원자--머리와 몸--의 자질과 권세를 대표한다.

전형적인 "영화롭고 아름다움"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뻛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출애굽 28:4 (출 28:4)

하얀 세마포로 된 "옷"은 대제사장의 순결함을 표시하는 한편, 의복을 치장한 자수들은 은혜의 작용으로 그 순결한 품성의 여러 가지 성장을 나타낸다.

하얀 세마포(의를 상징)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인 관은 이마에 빙 둘러 씌고, 거기에

정금으로 된 패, 곧 "관"이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매었다. 이것은 관이 **정당히** 그의 것임을 보여준다.

정금으로 된 패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졌다. 이는 이 대제사장은 여호와와의 의도를 달성하는데 온전히 헌신하였다 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금관은 그의 왕위도 역시 선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좌위에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게 되었다. (속 6:13; 시 110:4; 히7:17)

"세마포 띠"는 의로운 종을 표시한다.(세마포는 의로움, 띠는 종의 직분을 나타냄)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은 그의 충실함을 의미한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시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고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한 방울, 한 석류 번갈아 달아 만들어 졌다. 석류는 특선된 과일로, 구속자의 희생의 일의 충실한 이행이 풍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인류의 상실된 (잃은) 생명의 구속 --을 나타냈다. 금방울들은 우리 대제사장께서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희생의 일의 결과(열매들)가 온 세상에 명백하게 될 것--**선포될 것**--임을 의미하였다. 이는 전형에서 속죄일에 희생의 일의 결과가 에봇을 입은 아론이 성소에서 섬기고 나갈 때 나는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였던 것과 같다. 열매와 종들이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종들이 결과(열매들)에 주의를 끌게 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에봇"은 금실과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베실로 공교하고 아름답게 짜여진 천으로 만들어졌다. 에봇은 두 쪽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앞으로 내려지고 다른 한쪽은 뒤로 내려졌다. 이 두 부분은 양 어깨에 놓여있는 금 갈고리 둘에 매었다.

에봇은 **두개의 위대한 언약**을 상징한다.-- 앞쪽은 아브라함 언약을 나타내고 뒷 쪽은 새 언약을 나타낸다. 이것은 두 언약은 다 우리의 대제사장에 **의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언약 모두가 그에게 담당되어 있다: 만일 그가 그 조건들을 수행치 못한다면 두 쪽 부분의 에봇 (두 언약)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두 언약이 금 고리(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연합되고 그에게 단단히 매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에봇 위에 매는 띠"로 그에게 묶여져 있었다.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실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베실로 짜였다.

이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이것은 **종**이다 하고 말하는 것 같으며, 이것이 에봇의 띠이므로 이분이 "너희의 사모 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 3:1)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에봇의 한 부분(뒤쪽)은 새 언약을 상징하며, 이것은 갈보리에서 보증되었다: 주님의 죽음이 그의 성원들이 참여하는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마 26:28; 고전 10:16

에봇의 다른 한 부분(앞쪽)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시는 것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의 발전을 약속하시고 이 씨를 통해서 새 언약이 모든 사람을 축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씨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씨이시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리와 더불어 교회, 곧 몸도 포함하는 더 큰[합성의] 영적 씨를 예견하시고 예고하셨다.(갈 3:16,29) 그리고 사도(바울)는 아브라함의 지상의 씨도 온 인류를 축복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나 말씀에 기록된 바,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씨라고 지적하였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 4:22-31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은 복을 주는 제사장의 구성원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언약의 영적부분]으로 하면 저희[육의 씨]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아직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롬 11:28,29] "이것이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기 때문에[롬 11:27]--기록된바 시온[영적 교회]에서 구원자[위대하신 대제사장, 언약의 종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적은 무리"]가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롬 11:26]하셨다. 그들이 영적 또는 참의 씨에 의해서 처음에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동료 일꾼들이 될 수 있다. 롬11:26-29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 "씨"를 완성한 후에, 지상의 씨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한 부가적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되게 된다. 육신의 씨는 "바다 모래와 같이" 허다해지고, 하늘의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음"에 비유되어있다.(창 22:17) 그들은 먼저 의와 진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적 씨가 매개자를 통해서 진리와 영광으로 모든 인류에게 약속된 축복을 베푸는 작용을 할 그 매개자가 될 것이다.

에봇을 조립한 홍색, 청색, 자색 등은 두 언약의 조건들을 표시한다. **홍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전물의 피를 통하여 아담의 저주에서 구속하시는가를 보여준다. **하얀 세마포**는 원래의 순결로 인간의 회복을 가리킨다. **청색**은 그의 의로운 성품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는 도움과 능력을 그에게 보증해 주신다. **자색**은 [천년]왕국의 왕권을 선포한다. 섞어 짜인 모든 이러한 축복들은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의 신의 권능에 의하여 확신되어있으며, 이는 금 실로 섞어 짜있는데서 나타내진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관계되는 이 두 언약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언약의 축복들을 적절한 때에 집행할 위대하기도 하고 자발적인 자에게 담당시키셨다.

"판결 흥패"는 에봇 앞에 부착되었다. 그것은 어깨위에 놓인 고리들에서 내려온 금 사슬로 매달려졌으며 딸은 사슬로 에봇에 달린 금 고리 둘에 끼어 에봇에 붙여 떠나지 않게 되었다. 이 붙여있는 것이 밑에 그렇게 덮어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무심코 보는 자들에게는 흥패가 에봇의 한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출 28:26-28) 이 흥패는 훌륭히 율법을 상징 하였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봇)의 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에 더하여"진 것이다.(갈 3:19) 이스라엘 백성들은 (덮어 가리어져 있는 연결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430년 후에 세운 율법"을 모두 하나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적 씨와 육적 씨를 의도하신 두 가지의 씨가 있으며, 언약과 율법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씨)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롬 4:16

이 율법의 표상(흉패)은 대제사장의 의복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의 하나이었다. 그것은 에봇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다. 흉패에는 열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개의 귀중한 보석이 금에 고정되어있다. 이것이 가슴에 동여매어져 있어 이는 흉패가 그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의의 흉패"로써 그것은 그의 가슴을 덮었다. 모든 불완전성을 정죄한 그것(흉패)이 그의 뜻이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8



THE HIGH PRIEST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 흉패는 길이가 두 뼘이고 너비가 한 뼘이었는데 가운데로 접혔다. 두 겹으로 접혔을 때 길이가 한 뼘이고 너비도 한 뼘이었다. 한 뼘의 크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임을 나타낸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완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범하지 않고 지키신 유일한 분이셨다. 반면에 그의 몸인 "적은무리"에게는 그분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

흉패가 두 겹으로 되었고 두 부분의 치수가 똑같았다는 사실은 율법의 문자와 영을 의미하였다. 앞부분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금사슬로 에봇의 금 갈고리에 꿰어 걸어 내려졌다. 밑의 부분은 에봇에 매어 붙여졌다. 흉패(언약)에 붙여 매어진 이 밑(아래의) 절반 부분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준 문자로 된 율법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앞부분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롬 8:4) 우리에게 성취된 율법의 영을 예시하는 것 같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둘은 실로 하나이다. 그런데도 앞부분만 귀중한 보석들을 달고 있다.

순금은 신의 것들의 상징이므로, 율법의 이 부분(앞부분)이 금 갈고리에서 금 사슬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는 것은 율법이 신의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 인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역시 알고 있다. 율법의 이 면(앞부분)이 주님의 "적은무리"인 참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금에 고정된 "보석들"을 달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말 3:17) 따라서 "보석들"이 순금(신의 본성)에 끼워 묻히고, 하나님의 약속의 금사슬로 붙들려져 있으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하심은 당연하다! (놀랄 것 없다!) (롬 8:1,4)

아론이 대단히 전형적으로 의미심장한 아름다운 법의를 입고 거기에서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의 머리는 제사장직의 머리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반면에 그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교회를 상징한다. 흠이 없고 여호와와의 언약을 이행 할 권위와 권세로 옷 입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의 전형이 얼마나 감명 깊고 의미심장한 것인가!

하위제사장들---"몸"

몸, 혹은 대제사장의 구성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머리의 덮개인 "보닛"을 쓴 하위제사장들로 상징된 것은 그가 제사장직의 머리가 아니라 단순히 몸의 구성원들임을 지시하기 위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엡 1:22,23)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처음 태어난 교회인 신부를 상징하므로 여자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자의 머리가 덮여야 한다고 바울이 주장한 것은 이 이유였다.

하위제사장들은 세마포 겹옷을 입고 띠를 띠었다. 그들의 겹옷은 그들에게 간주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고 그들의 띠는 그들이 의의 종들임을 상징한다. 대제사장은

희생 기간(속죄일)에는 흡사한 옷을 입었고, 속죄를 마친 후에 영광스러운 의복으로 갈아입었다.

제사장을 기름부음

아론이 그의 머리위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듯이,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도 30세가 되어 자신을 헌신하셨을 때 요단강가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거기에서 그분은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그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는 모든 공동 상속자들 위에 **머리**로서. 이같이 헌신하는 각 지체에게 마다 **적당량**의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요 3:34) 요한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을 보았고 증거 하였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하고 그의 증언을 추가하였다. 요 1:32; 눅 4:1; 행10:38

기름 부음은 **머리에만** 부어졌다. 하위제사장들은 기름부음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몸의 구성원들로서 인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머리 대제사장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으로 그의 안에서만 받았다. 그러므로 실제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의 영에 단순히 참여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로 그리고 그들의 주님 예수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로 인식 될 모든 사람에게 인장을 찍는 기름부음에 참여자들이다. 엡 1:13,14; 4:30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시133:2),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몸 지체들이 그들의 머리 **다음**에 같은 기름 부음에 참여자가 되는가를 상징한다.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요 1 2:27) 이 기름은 오순절 날에 **몸**에 이르기 시작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머리와 함께 하나님께 천년동안 통치하는 왕 겸 제사장을 구성하면서 복음시대를 통해서 흘러내렸다. 계 20:6

우리는 따라서 겹옷으로 입히고 기름부음을 받은 아론이 전체의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의 완비된 씨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서 지상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구속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대한 구속자가 나타나실 때 -- 천년시대의 여명, 즉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완성되는 때와 "거룩한 기름"이 "그분의 의복의 치마 자락까지" 흘러내려와 모든 지체들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는 때를 하나님과 함께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레 10:7). 그 때에 위대한 구속자가 인류를 축복하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 왕 겸 제사장들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 --"왕국이 임하소서. 그것이 땅에도 임하소서."

*출애굽 30:30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부음을 받는 것을 언급한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아론 자신이 처음으로 직접 기름부음을 받았듯이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한 아론의 자손들이 각각 자신의 차례에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제 3 장

제사장 위임식

레위기 8:14-33

하나님 섬김을 위해 갈라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위임식 수소들과 숫양들 -위임식 기름부음용 기름

제사장의 위임식은 여호와와의 뜻에 --즉 죽기까지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죽기까지" 의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은 그의 몸의 지체의 순종-- 주 예수님과 그의 몸 교회가 인간본성을 헌신하는 것을 표상한다. 아론 자신으로 상징된 머리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로 상징된 전 몸은 왕 겸 제사장으로서는 인류를 회복하고 다스리며 축복할 그들의 미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여** 전형의 실제 희생을 함으로써 복음시대에 형성되고 있다.

이 헌신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봉사에서 그분의 뜻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극도는 여호와와의 기회가 된다; 제사장들이 인간 존재들로서 그들이 가진 모두와 그들 자체 모두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바치거나 희생하여, 그들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희생자들이** 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희생을 받아들여시는 중에 이들에게 새로운 본성(영적 본성)을 심어 주신다. 이뿐만 아니라 충성의 대가로 그분은 영적 존재의 최고의 반차(신의 본성)를 부여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 아들로써 소유 된 것으로 여기신다. 갈 4:4-7; 벰후 1:4

"죽기까지 충성하라"

희생하기로 헌신하고 따라서 "왕 겸 제사장 반열"에 참여한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왕으로서 봉사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신약에 명백히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전형에서도 보인다. 한 계급은 "불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고", "큰 환란에서 올라올 것"이나 그들이 상을 받기 위하여 헌신을 시작하고도 받고자 했던 상을 놓친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로서 그들의 희생하는 특권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함께 고난 받는"일에 충분히 열심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속죄의 날의 희생들을 검토할 때 각별히 나중에 고려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계급은 제사장으로 헌신했으나 이 제사장들에게 약속된 **왕으로서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급이다. 이 계급은 두 번째 사망에서 멸망될 것이다. 신약 성서(히 6:4-6; 10:28-31; 요일 5:16)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시켜준 이 사실들은 성막 봉사의 전형(그림자)에서도 예시되어 있다.

아론의 네 아들은 처음에 하위제사장직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둘은 멸망을 당하였다.--이것은 위에 묘사된 두 계급에 상응하며 이 계급 둘 다 왕 겸 제사장으로서는 낙제였다. 이들 중 하나는 둘째 사망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불을 통하여" -- 즉, 시련과 죄 씻음을 통하여-- 둘째 사망을 면했다. 그리고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은 잘려져 나간 그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

이 금지되었던 것같이, 이는 제사장들 중 충성된 자는 모두 하나님의 판결들의 공의를 인식하고 그 판결들에 겸손한 순종 가운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일 것을 의미한다. 실로 이는 충성된 자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며, 더 큰 열정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다. 말씀하신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레 10:1-7; 계 15:3; 히 4:1

"스스로 구별하여 성결케 하라" --그러면--"나도 너를 성결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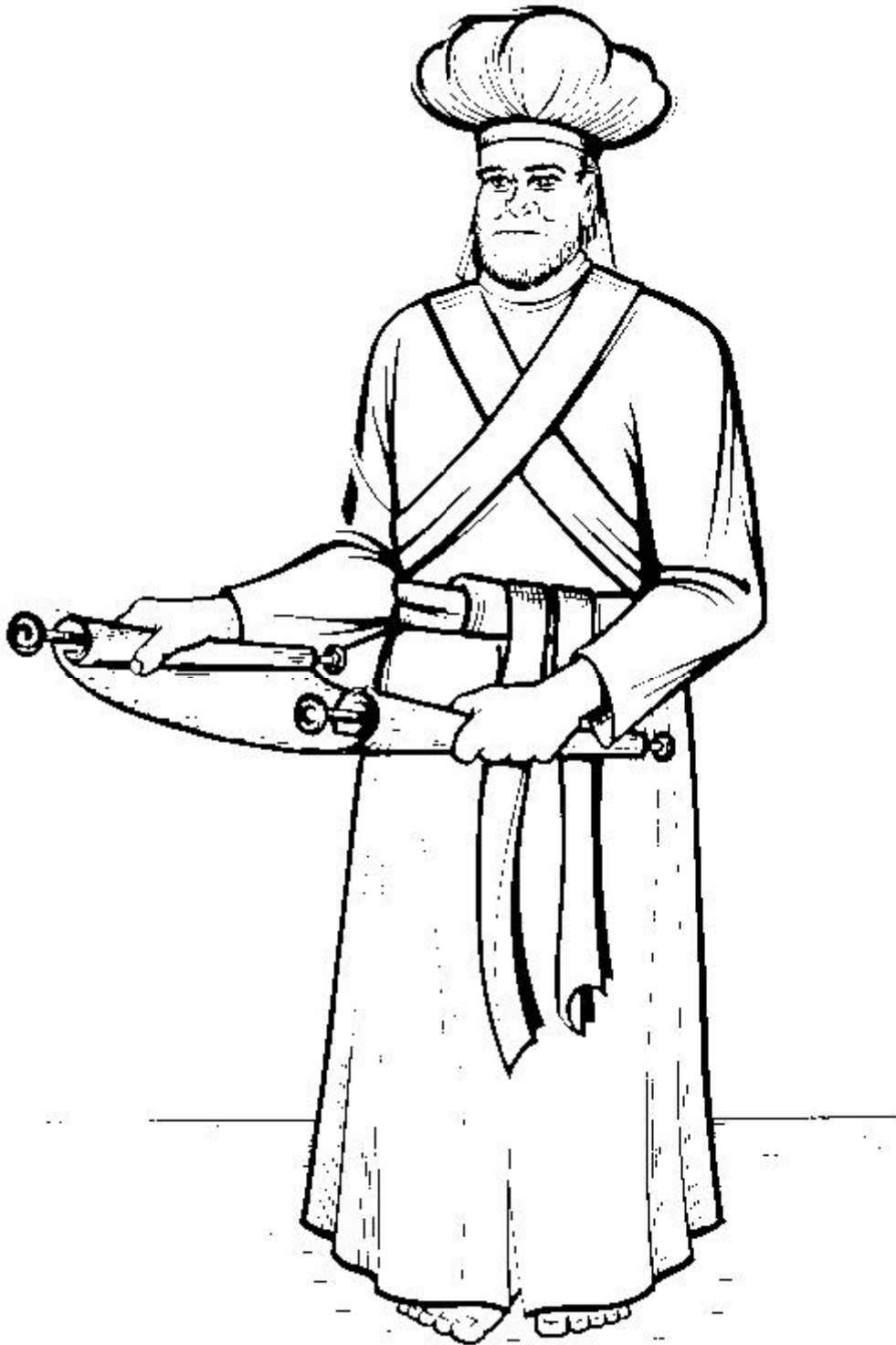
의롭다함을 입은 신도들에게 헌신하고, 성결해지라, 곧 신성한 봉사를 위해 스스로 구별하라는 초대는 **땅의 관심사와 권리를 포기하라는** 초대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희생들은 우리의 구세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받으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정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편의 약속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간주된 것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곧 그런 사람들을 구별 시키신다 곧 떼어 분리시키신다.

전형적 제사장들에게 수행된 전형적 위임식 예식은 두 가지 부분을 보여준다.-- 인간본성과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의 부분과 우리의 희생을 받아들여시고 우리를 따로 분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분이다. 새로운 영적 본성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상징되었으며, 희생된 세속적인 본성은 단위에 바쳐진 수송아지와 숫양에게서 상징되었다. 레 8:14-33

속죄제 희생으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희생이 우리를 상징한다. 이 순간부터, 수송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인간 존재로서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수송아지는 일반 인류 대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세로 상징된)"율법" 앞으로 이끌어 보내졌다.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송아지는 살육되어야하였다.--"모세가 살육하고", 그리고 그는 피를 단의 네 뿔에 뿌렸다. 따라서 "**율법의 손가락**"은 지상의 희생의 단이 흘린 피(희생된 생명)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것과 단의 권능(뿔은 권능을 상징함)을 깨닫는 자는 누구나 단을 성결케 하는 피를 **첫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 한다. 단 주위 밑바닥에 부어진 피는 희생의 피(희생된 생명)로 인하여 심지어 **땅**까지도 죄의 저주에서 사서 되찾으셨음을 표시한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엠 1:14. 참조

그리고 모세는 수송아지, 그것의 가죽, 고기 등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다.(17절) 그리하여 완성된 그리스도--머리와 몸--의 인간성은 "속죄제 희생"이 되어 세상이 처해 있고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이 희생에 의해서 세상이 구속 될 멸망을 경험한다. --**공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에 있으며, 그분의 "형제"(히 2:12)인 우리는 "**그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그분**"의 고통의 남은 분량을 채우는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 (골 1:24)



A PRIEST - IN LINEN GARMENTS(세마포 예복을 입은 제사장)

그러나 왕 겸 제사장의 인간성이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수송아지로 상징된 것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악취로서 죽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며" "나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라고 하는, 희생을 유발시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을 받아들인다.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기름과 생명을 유지하는 내장을 예물로써 구리단 위에 바치는 것에 의해서 상징되었다.

같은 위임식 예식의 다른 특징들은 18절과 22절에 언급한 두 숫양이 보여준다. 첫 번째 언급한 것은 번제 희생 숫양 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었다. 이는 숫양이 그들 자신을 상징함을 보여준다. 이 숫양은 도살 되었다. 그것의 피는 단에 뿌려졌다. 그리고 모세는 "숫양을 조각내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었다" 그리고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웠다."

따라서 전 복음시대에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가 지체로서 하나씩 하나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에 바쳐 놓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함께** 하나의 희생으로 간주된다. 머리가 번제 단에 먼저 놓이고, 그때 이래 "주와 함께 죽고" 전형에서와 같이 물로 --말씀을 통해--씻어 정결해진 모든 지체는 같은 번제 단에 머리와 함께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위에 예물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 희생을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준다.

둘째 숫양 곧 "위임식 숫양"은 무슨 효험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는 마치 첫 숫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번제 희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과 같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손을 위임식 숫양의 머리에 얹었다. 이는 위임식 숫양이 그들 자신을 상징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살육하여 그것의 피(헌신된 **생명**)를 취하여 각자에게 따로따로 발랐다. 이는 우리의 헌신이 개인적인 일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는 피를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다. 따라서 우리가 헌신함으로서, 우리의 귀는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헌신한 신자 외에는 아무도 진가를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양손은 헌신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바로서 우리 손이 찾아낸 일은 무엇이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한다. (전 9:10; 골 3:23) 우리의 양발은 헌신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이 행함 같이 **행**"하지 않고", "새로운 생활 가운데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영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드린 것 같이 그분 가운데 **행**한다. 레 8:23,24

숫양의 상등 부분들인 "내장들"과 "기름"은 우리의 **최상의 능력**인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나타낸다.[레 8:27] 이 "내장들"과 "기름"을 아론 제사장의 손바닥과 그의 아들들인 하위제사장들의 손바닥 위에 놓고 여호와 앞에 흔들 예물로 그것들을 여기저기 **흔들었다**. [레8:27] 이는 헌신된 예물은 주님 앞에 잠깐 동안, 하루 혹은 일 년간 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행로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흔들 예물을 취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끊임없이 결코 멈추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상징한다.[레 8:29] 그리고 모세가 그들 손에서 흔들 예물을 취하였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 하나님의 용납은 불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 왕 겸 제사장들은 흔들 예물이 하나님의 봉사하는데 다 써버리기 전 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충분하다--더 높이 올라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

는 동안,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의 봉사에 드리고 내려놓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장 내적인 사랑(기름)이 단에 놓여 질 때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불을 더 세계 일으키게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에 동반되는 사랑이 클수록 우리의 예물이 더 빨리 불태울 것이다.

"흔들 예물"이 그들의 손에 있을 때 모세가 광주리에서 세 개의 무교병을 꺼내어 이 "흔들 제사"위에 놓아 그 전부를 대제사장과 하위제사장들의 양손 위에 놓았다.

첫 번째, 무교병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결백을 표시한다. 그리고 사람들로서 교회의 간주된 결백 -**의롭다함을 얻음**-을 표시한다. 이는 율법(모세)에 의해서 증명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로 받아들여 있는 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롬 8:4)

두 번째 기름 섞은 떡은 내재하는 하나님의 영 -**거룩함**-을 표시한다. 세 번째 전병은 미래의 영광과 영예와 불멸성의 지극히 귀중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표시한다.

이러한 요소들 없이는 우리의 헌신이 완전하거나 철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요소들은 곧 **의롭다함을 얻음**(순결)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약속된 **영광스럽게 됨**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영에 의한 **거룩함**이다.

기름부음용 기름은 위임식 희생의 피와 섞어 그들 위에 뿌려졌다.(30절) 이는 우리의 헌신은 단지 우리 구주의 귀중한 피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단지--"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하셨다. 엠 1:6

위임식 고기를 삶는 것(31절)은 희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단지 먹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었다. 그리고 남은 것을 태워버려야 했다.(32절) 이는 우리가 전부 그리고 완전히 헌신 된다는 것과 우리의 시간과 능력이 조금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임식 기간 칠일 간(33절, 35절)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의 봉사에 바쳐야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성서에서 일곱은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며 **전체** 또는 무엇에 적용되든 **전부**를 의미한다.(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등) 36절은 헌신하는 과정이 완수되었음을 보여 준다.

제사장으로서 헌신한 모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흔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재능을 받아들여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하여야한다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에 더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바로 곧 **머리**와 함께 받아들여진다는 것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자기희생적인 직무가 끝나고 인류를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일이 시작될 것임을 성서가 가르친다고 이해하는 그들에게 특히 관심사이다.

전형의 제사장들 실체가 실체의 헌신을 하는 것은 현재 복음시대에 제한되어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이시며 선구자께서 "자신을 바치신" 이래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완결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현재 헌신하는 기간에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제사장들이 왕국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끼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은(지금은 사람들에게 열시당하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왕이라는 칭호가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함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축복할 것이다.(계 20:6)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현재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딤후 2:12

하위제사장들의 기도

"승리자이신 대제사장이여 ! 더 이상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당신께서 희생하시려고 오시지 않으시리라;
더 이상 죄의 두려운 처벌로 고통당하시지 않으리라.
큰 구속의 값이 지불되었고, 하늘의 영광이 획득 되었도다,
그리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곧 나타나시리라!

"모든 영화를 누린 대제사장이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풍성한 은혜와 사랑, 당신께서 소유하셨노라!
합법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서 다스리시리라!
기쁨의 나팔소리가 당신의 의로운 이름과 가치를 선포하는 동안에,
그리고 만군이 엎드려 당신의 찬양을 고백하는 동안에.

"오 나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여, 오 나의 친절한 대변자시여,
고백자의 끊임없으신 친구이시로다,
아직도 우리의 슬픔과 비천함을 동정하시는 마음으로 감동 되시도다!
기대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은혜의 일,
그리고 당신의 축복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내리시도다!

제 4 장

위대한 "속죄일"

레위기 16:3-33

전형의 순서와 그것의 실체의 의미 -수송아지 -제사장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 -분향과 향내와 악취 -지성소에 들어감 -주의 염소 -아사셀 -백성들을 축복

전형으로서 속죄일은 성막의 다른 전형과 분리하여 고려하되 그러나 한 부분의 것으로 다른 전형과 관련된 것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실로, 이 전형들은 말하자면 각기 별개의 **그림들**이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각기 독특한 가르침이 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룬다. --이는 마치 한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처럼 한 화랑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그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각 별개의 그림들에서, 우리는 먼저 머리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몸, 즉 교회인 하위제사장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속죄일의 의미와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할 점은 우리의 주 예수께서 몸소 하위제사장들, 곧 "그의 몸"인 복음시대의 교회에게 우두머리 제사장이시지만 더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그분은 세상의 대제사장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대제사장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점이다. 바로 그대로 아론은 그의 하위제사장직의 위에 우두머리였으나, 실은 일반적이며 적합한 의미에서 하위제사장직을 대표하면서 그는 **"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도록 임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민족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마련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호의와 순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인류의 전형적인 대표자들이다.

전형의 실제 제사장직을 위임시키는 일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고 몸을 완성하기 위하여 복음시대 전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속죄 희생이나 속죄를 위한 희생과도 그렇다. 속죄를 위한 제사는 머리에서 시작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운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채우는 일이 복음시대 전체를 필요로 한다. 뱀전 4:13; 롬 8:17; 고후 1:7; 4:10; 빌 3:10; 골 1:24; 딤후 2:12; 뱀전 5:1,10

전형에서 단지 하루 24시간 하루의 행사였던 속죄일이 그러면 실제에서는 복음시대 전체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리고 복음시대의 종결에 제사가 끝나자 영광과 축복이 시작되며, 세상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머리와 완성된 지체들로 **하나**가 된)이 왕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 곧 평화의 왕--왕좌위에 제사장--의 면류관을 쓰시고 권세를 누리실 것이다. 히 5:10

그때 그분은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인식은 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왕 겸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로서 나타나실 것이다.--"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천년통치기간에 이 대선지자의 통치와 가르침 아래서, 온 인류는 완전한 지식과 능력으로 이끌어질 때 철저한 순종이 요구될 것이며, 이것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생명이 끊

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다. 행 3:22,23

유대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는 선지자로서, 왕 겸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바치셨는데, 이는 완성되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인 몸 전부를 온 세상에 바치는 것의 전형이나 예증이 된다. 선지자로서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바치셨다."(히 7:27) 그리고 왕으로서 그의 봉사의 직무의 종결에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그들의 도시로 들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한 직분 중 어느 직분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음시대에 그분의 교회인 그의 몸은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으로 그분을 인정하였다.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으로(히 3:1), 법적 권리를 가진 왕으로 (겔 21:27) 인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교회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분은(자신의 몸인 교회와 함께) **모든 국민의 선지자, 모든 국민의 제사장, "모든 국민과 나라와 언어"의 왕; 즉 온 세상의 제사장, 온 세상의 선지자, 온 세상의 스승**이라고 하신다.

전형적 제사장의 임직식에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보았다. 수송아지는 그들의 인간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지금 고려되려는 전형에 있어 아론 혼자서 기름부음 받은 자들(머리와 몸) 전체를 상징함을 발견한다. 그리고 두 다른 희생, 즉 수송아지와 염소는 머리와 몸이 분별 되나 "속죄 희생"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는 머리와 몸의 동일성을 상징하기 위하여 여기서 사용된다.

속죄일의 첫 번째 희생 수송아지

수송아지는 30세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시고 죽으셨다. 대제사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름부음 받은 머리아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예수님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새로운" 본성을 상징한다. 여기서 지어진 **인간과 "새로운 창조물"**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 30세 나이에 "자신을 주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부유(더 높은 본성의 존재) 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즉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인류를 위하여 오직 가능한 상응하는 대속물- 완전한 인간의 생명-로 바치실 수 있기 위해서였다. 고후 8:9, 고전 15:21

죄의 처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은즉 죄의 처벌은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그 처벌을 보상하시려면 그분께서 똑같은 본성(그러나 흠 없고, 죄와 죄인의 종족에서 분리된)이어야 하며, 그래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죽음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 인간 예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했다.--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영광,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영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생명**"까지. 이것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었다.(**새로운** 본성으로

* 성서연구, 1권 10장과 2권 126쪽 참고

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산출할 **희망**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영적 본성이나 영적 존재를 "속죄 희생"으로 드린 인간과 교환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속죄일 수소에 의해 상징되었다. 요1:14; 사 53:10

그러나 **사람인 예수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상응하는 대속물 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가 주신 **성년남자로** 되찾아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그분이 주신 상응하는 대속물 값을 되찾으신다면, 대속의 대상인 우리는 다시 사망의 저주 아래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이 영원함으로 우리가 아담의 죄와 죄의 처벌인 죽음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다면 만일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광이나 영예나 생명을** 예수께 보답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이상의 어떠한 다른 단계의 존재에서 영광이나 영예나 생명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을 위한 여호와와의 계획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단계 위에, 인간으로 되기 이전의 상태 위에, 그리고 모든 천사와, 정사와 그리고 모든 권세 위에, 자기의 오른편(여호와 다음가는 **최상의** 호의)에 뛰어나게 하실 것과 그리고 불멸성--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저는 그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12:2; 빌 2:9; 히1:3,4

우리 주께서 인간본성 대신에 그것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받으신 새로운 본성은 여기 제사장에 의해 전형되어 있다. **인간의** 희생은 십자가에 못 박힘 때 까지는 끝나지 않았고, **신의** 본성의 보상은 죽으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기 전까지 완전히 받지 못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로는--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보여주듯이--예수님(수소)의 죽음은 (요단강에서) **자신을 산 제사로 바치셨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침례는 그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분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셨다.--모든 인간의 목적에 대하여는, 인간적 영광, 명예 또는 생명의 희망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기셨다.--같은 의미로 우리도 그분의 추종자인 우리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산 것으로 여기라고 권고를 받는다. 롬 6:11

예수께서 헌신하셨을 때, 마치 그분의 희생이 완료되고 참으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여호와께서 받아들이심은 죽음이 실제로 왔을 때 그분이 받으시게 될 것의 "담보" 또는 증표인 성령의 기름부음에 의해서 표시되었다.

이와 같이 고찰해 볼 때, 수소의 죽음은 예수께서 헌신 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희생에 바치신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헌신, 즉 자신을 희생에 바치심에 대한 사도의 진술과 조화를 이룬다. 그는 예언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는)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영감 받은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거기서[요단강에서], "그 첫째 것[전형적 제사]을 폐하심은 둘째 것[전형의 실체, 즉 죄에 대한 실제의 제사]을 세우려 [이행하려] 하심이라." 히10:7,9,14

그렇습니다. 수소의 살육으로 전형된 속죄제 희생의 살육이 거기서[요단강에서] 일

어났다. 그리고 삼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봉사는 모든 **인간적인 의지가 죽었고**, 헌신하신 순간에서 부터 육신의 몸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침례를 받으신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기름부음 받은 예수께서는 **신의 "새로운 피조물"**이셨다.(부활하실 때까지는 신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분은 그 관계를 항상 주장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인간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니라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신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요 14:10,24) "그러나 나의 뜻[인간으로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 까지 헌신된 이"질그릇" 안에 그리고 이"질그릇"에게. (눅 22:42)

수소는 성막 뜰에서 살육시켰다. 성막 뜰은 우리가 살피 본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일치하는 상태를 상징한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인간본성인 육신으로 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달성이다. 예수께서 그 자신(전형에서 수소)을 하나님께 바치셨을 때 이 상태에 계셨다, 즉 완전한 인간이셨다.

전형적 속죄일의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사이에 이러한 구별들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론은 머리와 몸 지체들의 "새로운 피조물"의 순수함과 죄 없는 상태를 적절히 상징하기 위하여 몸이 씻겼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죄를 행할 수 없나니; 그의 씨가 그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이라." 요일 3:9 디아글롯역)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새 피조물의 의무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 과거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옛 의지가 새 의지와 지배를 분할하려는 것은 과거의 본성이 죽지 않았으며 새로운 본성이 "이겨내지"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옛 것이 **승리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죽음**, 즉 둘째사망을 의미한다.

아론은 일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인 **희생**의 의복을 속죄의 날 행사를 위하여 입었다. 이 세마포 겹옷은 뒤따르는 영광스러운 겹옷의 **담보(증표)**이다; "세마포 띠"는 속죄일의 종말에 그가 에봇의 "**공고히 짠 띠**"로 허리를 둘러매게 될 때만큼 그렇게 권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론을 종임이라 상징 한다; 세마포 관은 영광스러운 옷에 속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므로 희생 하실 때와 그 후에 까지도 우리 머리되시는 분의 완전한 의를 표징 한다. 그러므로 잔형의 대제사장 실체는 (영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영으로 거듭나서 신의 마음을 지니신 자로 아론이 상징한 속죄 희생을 그의 첫 강림에 수행하실 준비가 되셨고 완수하실 수 있었다.

"아론이 성소[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린 수소로 속죄제 희생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 희생을 삼고 (3 절)... 그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상징하는]속제 어린 수소를 드리되 자기[**그의 몸**의 지체들, 즉 하위제사장들]와 권속[모든 신자들, 즉 믿음의 가정" 전체 -레위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6절)... 그는 자기를 위한[상징하는] 그 속죄제 어린 수소를 잡고(11b)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울

불을 그것[향로]에 가득 담고 또 두 손바닥에 곱게 간[가루로 뺀] 향기로운 향을 가득 채워 가지고 휘장[첫째 휘장 즉 "문"] 안에 들어가서(12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불타는 숯불로 가득 담은 향로를 "성소"에 있는 금 향단 위에 놓고 그 위에 곱게 뺀 향을 뿌려 점차 향 연기를 피운다] [둘째 휘장을 넘어 스며드는] 향연기로 언약[율법]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뒤덮게]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조건들에 근거로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위반함으로써 죽는 죽음] (13절)

전형을 통하여 실체를 고찰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분의 일의 이 예언적 그림과 한 단계씩 비교해봅시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헌신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은 즉시 희생 된 인간 목숨(수소의 피)을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요일 2:2) 상응하는 대속물 값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성막 뜰" 상태에 계시지 않고 첫 "성소"상태에 계셨다. 이 "성소"에서 체류하시면서 시험의 불 위에 그의 향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완전한 영적 상태인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의 충성과 독생자로서 겪었던 고난에 의한 의를 하나님께 증거 하여야 한다. 히 5:8

["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번제 단위의 숯불을 담은 향로를 (피와 함께) "성소"로 가져왔으며, 그의 두 손을 향기를 일으키기 위하여 곱게 간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헌신 서원의 이행도 아버님께 향기롭고 받으실 만한 향기였다. 이는 헌신의 완결과 희생의 완전함을 즉시 증언한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은 사람 예수의 완전함을 상징한다.

"구리단"위의 불은 예수께서 당하신 시련을 상징한다. 제사장이 "구리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 성소의 분향 단으로]가지고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 주께서 자신의 충실한 인생행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 존재의 완벽(향)이 생의 시련(불)에 부딪혔을 때, 그분은 신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즉 향기로운 향을 피우셨다. 따라서 모든 점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향이 불에 완전히 소진되어야했던 것처럼 그분도 그의 전부를 순종에 양도하셨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 가득히" 바친 이는 제사장이었다. 이는 따라서 우리 주 예수의 의에 대한 완전한 역량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께서 "성소"에서 금 등대의 빛을 즐기시고, 진리의 빵으로 섭취하고, 여호와께 즐겨 받으실만한 향을 올리고 계시는 동안 우리들의 주의를 "성막 뜰"로 그리고 더욱 더 멀리 "진영"너머로 돌려 또 하나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막 뜰"에서 30세에 침례를 받고 헌신하신 사람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수소가 죽은 것을 보았다. 그때 어린 수소의 기름이 "번제 단"위에 놓이고 콩팥과 여러 가지의 생명을 영위하는 기관들과 더불어 놓였다. 수소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들 콩팥과 기관들이 격렬히 타고 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라고 부르는 연기의 구름이 "성막 뜰"에 있는 모두들--레위족 즉 믿음의 가족들--에게 보이는데서 떠오른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졌는가를 상징한다. 그들은 우리 주께서 3년 반 기간 봉사하시는 동안에 향기롭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헌신과 자기희생과 사랑의 열의(기름)를 보았다. 그들은 아

버지께서 그분(아들)이 바친 희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음을 알았다. 비록 그분의 희생 제사를 여호와와 눈("성소")에 "금 향단"위에 향기로운 향으로 나타난 것처럼 최대한으로 위대하고 완전한 상태로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분이 받아드려진 것을 "성막 뜰"에서(육신으로) 본 것으로부터 알았다.

그리고 이 두 불이 타고 있는 동안("성막 뜰"에서 "기름"이, 그리고 "성"에서는 "향"이 타고 있으며, 이것들의 향기가 **동시에** 오르며 타고 있는 동안) "진영" 밖에 또 다른 불이 있었다. 거기에서 속죄제 희생(어린 수소)의 고기가 소멸되고 있다.(27절) 이것은 예수님의 일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을 희생 가운데 보내신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인간을 위한 상응하는 대속물 값으로서 그 희생의 필요성을 알아보지 못하며 그 희생을 유발시킨 순종의 심령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성막의 뜰"의 상태에 있는)이 보는 것처럼 그에게서 우리 주의 사랑의 완전성과 자제를 알아보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때나 그 후에도 자기들의 이상적인 영웅이며 지도자이심을 몰랐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약자로 경멸한 요소들만 주로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희생을 불쾌하고 모욕적으로 여겼으며 지금도 그렇게 여긴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린바 되었다.(사 53:3) 그리고 이는 마치 전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시체의 악취로부터 역겨워 외면한 것처럼, 그들이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그분에게서 돌린 것과 같다.

그라면 우리는 어떻게 삼년반 동안의 예수님의 평생이 세 가지 상태 모두를 갖추었음을 볼 수 있다: 즉 (1) 세상의 판단으로는 그분의 완전한 성년 남자의 희생이 어리석고 몹시 혐오스러웠다는 것: (2) 믿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희생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 (3) 여호와와 판단으로는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결말지어졌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셨을 때, 어린 수소는 완전히 소진되었고, 모든 기름은 다 태워졌고, 향은 전부 바쳐졌다. 이렇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상응하는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딤후 2:5,6)

"금 향단"에서 향이 미리 올리어지고 만족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시험에 통과됨을 상징-- "지성소"로 들어갔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다: 헌신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인 "성소"에서 삼년 반 동안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두 번째 휘장"아래서 즉 사망 안에 삼일동안 계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두 번째 휘장"을 넘어서 신의 본성의 완전한 상태로-- 아버지 본체의 형상으로 부활하셨다.(히 1:3) 그분은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심을 받으셨다.**"(벧전 3:18)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다."(고전 15:44) 따라서 우리의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적 존재의 완전상태를 상징하는 "지성소" 상태에 도달하셨다.

예수님의 다음 일은 속죄의 피 -우리 구속의 값 -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14절) 성서에 "너희는 ...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벧전 1:19)"하셨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두 Cherubim (게루빔) 사이에 있는 Shekinah 빛으로 상징된 여호와와 앞에서 여호와께 피를 바쳤다--즉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40일 후에 높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속의 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Calvary에서 끝내신 희생의 가치와 공로를 바치셨다. 히 9:24.

속죄일 두 번째 희생

주께 바치는 영소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을 "속죄소" 앞에 남기고 또 다른 일을 목격하기 위하여 성막 뜰로 나간다.

레위기 5절에서 10절, "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 희생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를.....가져갈지니라 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희생의 어린 수소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 또 그 두 영소를 가지고 성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8 두 영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영소를 속죄제 희생으로 드리고 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영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

(레16:5-10)

이스라엘에게서 취하여 "성막 뜰"로 데려온 두 영소는 복음시대에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드리고 하나님의 봉사애 그들의 생을 죽기까지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였다. 첫째로 "다른 이들과 같이 죄인들"인 세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진영"에서 취해진 두 영소를 믿음의 상태, 즉 "**의롭다고 선언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성막 뜰"로 데려왔다. 거기에서 성막의 문에 있는 두 영소로 상징된 그들이 자기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적인** 존재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듯이 하늘의 상태 또는 두 단계의 영적상태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첫 번째 단계의 영적상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영적마음의 상태이며, 두 번째 단계의 영적상태는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인 몸의 상태이다. 이는 각각 "성소"와 "지성소"에서 상징되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언명하셨다. 그래서 역시 이 전형은 어떤 사람들이 "주여, 여기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고 말하며 기꺼이 수행하려는 것 이상으로 약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네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모르거니와 그들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람 예수[수송아지]의 발자취를 좇는데, 즉 "그가 당하는 치욕을 당하며 진영 밖[인간 희망 등의 전적 무시와 파괴]으로 그에게 가기 위하여 자기를 거부하는 무슨 희생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히 13:13

이 전형에서 두 영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기로 **서약한** 두 계급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진실로 그의 발자취를 좇는 자들과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히 2:15)을 말한다. 첫 번째 계급은 "주님의 영소"이고, 두 번째 계급은 "아사셀을 위한 영소"이다. 이 두 계급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속죄하는 **일**--즉 이 "속죄일"(복음시대)이 끝날 때 세상을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를 좇은 첫 계급 --"주님의 영소"--만이 "**속죄제 희생**"의 일부가 될 것이며(9절) 그들만이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어느 영소가 "주님의 영소"가 되고 어느 영소가 "아사셀을 위한 영소"가 되는가를

알기위해 제비를 뽑은 것은, 자신들을 바치는 그들 중에서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헌신한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신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고 누가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와 함께 왕 노릇 하게 될 것이고, 절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곧잘 피하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공동상속자의 상을 놓친다. 롬 8:17

속죄일 곧 복음시대 동안에 자신을 제공하는 믿는 사람마다 즉, "성막 뜰"에 있는 의롭다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레위인)은 누구나 희생에 받아들여지며 지금이 받아지는 은혜의 때이다.[고후 6:2]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주의 염소"에서 상징되어있고 자신을 희생에 기꺼이 바치지 않는 사람들 즉, "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서 상징되어있다.

이제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아와 보자: 어린 수소의 피로 일곱 번(완전성을 의미함) **속죄소**(속죄를 시키는 장소)에 피를 뿌린 후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두 번째]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수소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레 16:14-15)

한마디로, 어린 수소에 관하여 행한 모든 것은 "주께 바치는 염소"와도 되풀이 되었다. 같은 "제사장이 염소를 죽여 그것의 피를 똑같이 뿌렸다. 염소의 기름과 그 밖의 것들도 "성막 뜰"에 있는 단위에 꼭 같이 태웠다.(장년기의 수소는 항상 살이 찌서 기름이 아주 많이 꺼있는 한편 염소는 몹시 여윈 동물이란 것이 주목될 만하다. 이와 같이 수소로 전형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위한 정열과 사랑의 매우 풍부한 기름을 가지셨다. 반면 염소로 전형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비교하여보면 말랐다.) "주께 바치는 염소"의 몸체는 수소의 몸체와 같은 방법으로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다.

사도 바울은 **속죄제 희생**이였던 동물들만이 진영 밖에서 태워졌다고 설명한다. 그 다음 그가 이렇게 덧붙인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 13:11-13)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염소"에 의해서 상징 될 뿐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와 함께 포함되어 세상의 속죄제 희생의 일부를 이룬다는 의심할 바 없는 증거를 제공한다.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시 69:9)

속죄제 희생들에 있어서 어린 수소를 취급한 식과 같이 염소와도 같게 취급한다. 속죄제 희생을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것은**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깔보이게 간주됨을 상징 한다. (1) 그리스도의 지체의 희생을 속죄소까지 풍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자들은 극소수이다. 이 극소수는 그 자신들 자체가 "성소"안에 있는, 즉 "하늘의 상태에 그리스도와 함께 얹힌"그들 만이다. (2) 구리단위에 올린 "주님의 염소" 속죄제 희생의 기름으로 상징된 성도들의 희생들을 인식하고, 그들 자신들의 부인이나 자제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수가 더 많다. -- 이들은 의롭다하심을 받은 "성막 뜰"의 상태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다. (3) 이러한 희생하는 자들과 그 자신들의 부인이나 자제를 단지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를 태우는 것으로나 보는 진영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먼 계급, 즉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주님께서 예고하신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라고 하심은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하신 것이다.

다음 문제들은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을까? --즉 우리가 "성소"안의 참된 희생하는 자들인 한, 혹은 "성막 뜰"안의 "믿음의 가정"의 참된 식구인 한 우리는 현시대에 참된 희생하는 자를 욕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들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사악과 증오와 질투로 혹은 싸움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때 "형제"이었으며, 같이 희생하고 같은 "금향단"에서 같이 예물을 바치며 왕 겸 제사장 반차에 동료이었다가 완전히 변하여 정 반대의 정신이 들려서 계속적으로 동료 제사장들을 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무엇이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성소"와 "성막 뜰"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즉 "바깥 어두운데"로) 나갔음을 물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히 4:1)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 해야 할 것이다.(약 5:20) 그러나 우리는 무분별하게 악을 악으로, 비방을 비방으로 갚으려고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 충성한 하위제사장들일 자들은 모두 위대한 신 대제사장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벰전 2:23

주님의 영소는 충실한 주님 추종자들의 적은무리 전체를 상징한다. 그들은 모두 서로 같으며 모두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한다. 무엇이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체를 구성하는 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소"는 적은무리 각자와 그 각자의 희생을 상징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상징인 영소의 "피"가 "속죄소" 위에 바쳐지기 전에 몸 전체가 완성되고 모든 지체의 제사들이 끝나야 한다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진 피는 십자가의 위쪽 끝을 "속죄소"위에서 시작하여 십자가 형태의 모양으로 뿌려졌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보여 진다.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뿌릴 때 속죄소 위의 동쪽으로("휘장"쪽) 그리고 속죄소 앞에(가로질러, 정면에) 그리할 지니라."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속죄제 희생들이 완성되었다. 즉 --어린 수소는 대제사장의 "몸"인 **하위제사장들**과 현재시대의 "믿음의 족속들"인 레위족속을 위한 속죄제 희생, 그리고 영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희생이다. 이스라엘은 미래 기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어 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복음의 시대 전체는 하늘의 신적 본성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지상의 인간 본성을 희생하는 그들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다. 예수께서 그의 "몸"과 그의 "집"을 위하여 제사를 완성하고 승천 후 그의 제사가 아버지 앞에 바쳐 지자마자 그의 희생을 받아드리심의 증거가 보내졌다. --그의 교회와 그의 몸과 그의 집의 대표자들 위에 내린 오순절 날 성령의 침례가 그 증거이다. 거기에서 그의 기름부음 즉 성령(거룩한 기름부음의 기름으로 상징되었음)이 교회에 임하였으며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몸의 살아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계속된다. 그래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아 들어간 각자는 그것에 의해서 그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까닭이다. 그 성령이 그 몸의 각 지체를 소생시킨다.

이 성령을 내려 부어 주심은 그들의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아드리실 것과 양자의 영에 의해서 아들로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머물러 있는 주님 안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드리심의 표이다. 오순절에 주님의 권세 또는 "영향력"인 성령이 내려온 것은 전형에서 (레16장 15절) 대체사장이 성막 문으로 오는 것과 "주님의 영소"위에 그의 두 손을 얹는 것과 그것을 잡는 것에 의해서 상징되었다. 마치 아버지의 영이 예수로 하여금 어린 수소를 잡는 것에 의해서 상징된 모든 것의 성취를 가능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영소" 반열 위에 내린 같은 영 곧 하나님의 권세 또는 영향, 곧 진리의 영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약속된 영광과 존귀의 신의 본성의 불멸성을 얻을 소망 중에 인간으로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영소, 곧 타락된 **의지**를 죽이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지도자이신 머리의 영을 지니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해로운 것과 찌꺼기로 여김은 그가 그리스도[안의 회원자격]를 얻고 **그분[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되려함이였다. 이 희망과 영으로 감명되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내가[성별된 영소로 상징된 원래의 피조물이] 산 것이 아니요 새 피조물이 사는 것이라."(갈 2:20) 내 원래의 피조물은 이 세상--진영 바깥--의 비난과 모욕으로 소멸되고 있었다. 바울의 **세속적** 애착과 권력은 산 희생으로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 그 후 그의 안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었다.(골 1:27)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간본성과 그의 **의지**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억제시키면서.

그는 실제로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속해있지 않았다. 그만큼 이것이 진실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에** 의한 삶이라"(갈 2:20). 그렇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간주되었다. 만일 끝까지 충실하면 피조물에게는 신의 본성을 받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속한다.(벧후 1:4). 그는 "성소" 상태에서 "진실 빵"을 먹으면서 "금 등대"에서 나오는 [진리]불빛으로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받으며 살았다.

따라서 "식과 능력으로 무장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를 피울 수 있었다. 즉 사도 바울의 희생이 예수의 은혜로 귀여 된 까닭에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따라서 그는 계속 영소의 본성을 **희생시켰다**, 그는 육신의 **의지**를 계속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순종"시켜 새로운 의지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일이 "주의 영소" 반열의 다른 성원들에게 반복된다. 바울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희생이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여, "금 향단"위에 올렸기 때문이다.

영소가 속죄제 희생 뒤에 남긴 것을 채워서 어린 수소에 의해서 시작된 희생(제사)을 완결하였던 것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적은 우리"는 예수의 고난 뒤에 남은 것을 채운다.(골 1:24) 이것은 우리의 제사가 우리 주님의 제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속죄제 희생인 상응하는 대속물로서 완전하고 적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을 용납하심은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히셔 첫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다음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하심**을 받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완전한 희생(제사)과 **더불어** 바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을 허가해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회복시키는 특권과 기회로 모든 인류를 축복하는 그분의 미래의 일에.

"주님의 염소" 반열의 **마지막** 지체의 희생이 전부 소멸되어 끝나고 속죄제 희생이 영구히 끝날 때가 언젠가 올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지금 "속죄일"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염소" 반열의 마지막 남은 지체들이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주어진 증거에 의해서 굳게 믿는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계급의 마지막 지체들이 두 번째 "휘장"(육신)을 통과하여[육신의 죽음을 뜻함] 영적 본성의 완전성["지성소"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이 영적 본성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의 인간성을 지금 지배하는 새로운 마음이나 의지에서 이미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충성한 자들에게는 아주 제일 높은 영적 본성이 -"신의 본성"- 약속되어 있습니다. 뱀 후 1:4

몸이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한다는 것의 뜻은 머리가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한다는 것의 뜻과 유사하다. 즉 염소의 피를 제공하는데 포함된 뜻은 어린 수소의 피를 제공하는데 포함된 뜻과 유사하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는 대제사장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를 벗고 완전히 인간 상태를 벗어나 신의 본성의 완전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본체의 현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희망입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깎 때에 주의형상으로 만족 하리이다."라는 것이 예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얼마나 장엄한 약속인가! 히 1:3; 롬 8:29; 시 17:15; 요일 3:2

만일 우리가 상을 위해 달리는 그 상을 다만 얻을 수 있으려면, 그러면 -

"모든 육적인 욕망을 소멸하여 주소서.
우리가 땅에서 추구하고 우리가 정통한 모든 것을:
그러함에도 나의 상태는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늘의 조망들을 우리가 지금 소유함이다."

"지성소"에 도달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몸**의 희생 제사의 증거는 "속죄소" 위에 뿌린 염소의 피에 의해 상징된 것처럼 제공될 것이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성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레 16:16

그 증거가 제공될 때 그 증거는 마치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증거가 "자기[그의 몸]와 그의 집[믿음의 친족]을 위하여" 받아드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받아드려질 것이다. 따라서 화목을 이루는 작업이 완성될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는 덮여질 것이며, 그 속죄의 장대한 결과를 세상에 주시는 이 위대한 작업이 신속히 시작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를 위한 상응하는 대속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신 후) 예수님의 희생이 받아드려지고 나자 오순절 날의 축복이 "몸" 위에 임하였고 그것의 반사적 영향이 "믿음의 가족" 위에 신속히 왔던 것과 똑같다.

모든 것에 피로 뿌린다는 것은 "피"가 **충족한** 만족[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한 뒤이어 행해지는 "아사셀

을 위한 염소"의 일은 속죄제 희생의 부분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화목 시키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안에 어떤 다른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관찰해야 한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20 그 "지성소"와 회막["성소"]과 단["성막 뜰"에 있는]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드리되 21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16장 20-22절

앞서 나타낸 것처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주의 염소와 더불어 희생하기로 바쳐졌으나 희생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계급을 상징하는 어린 수소의 모범을 따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의 본성을 희생하기로 언약하였으나 그 희생의 언약을 수행하는 것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염소" 계층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들이거나 마치 돼지처럼 죄의 구덩이로 돌아가 똥구는 자들을 상징하지 않는다.(히 10:39; 벰 후 2:22) 이들은 오히려 죄를 피하기를 추구하며, 도덕적으로 살고자하며, 주님을 영예롭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또한 이들은 세상의 영예와 축복을 추구한다. 그들은 주님의 봉사와 그의 목적에 종사하는데 있어 이 땅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을 망설이고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계층은 이 복음시대를 통해서 계속 존재해왔다. "속죄일" 종말에 이 염소와 그것으로 수행된 일은 비록 그것이 희생시대의 종말에 살고 있는 이 계층의 구성원들을 특별히 대표하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시대에 그 무리의 각 개인을 대표한다. 속죄제 희생이 끝날 때 살아남아 있을 이 무리의 구성원들 --"아사셀을 위한 염소" 계층의 마지막 구성원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취급을 먼저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그 전형이 같은 계급의 앞서 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또한 적용되는가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속죄제 희생"을 드린 후 미래의 일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염소"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사장의 몸에 의해 상징된 "적은 무리"는 아직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영적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의 특별한 일은 그 후 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성경구절들(계 7:9,13-17 그리고 고전 3:15)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위대한 상을 추구하여 경주를 시작하고 나서, 그 상을 얻도록 "그렇게 "달음질" 하는데 실패하는 "큰 무리"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상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지만(고전 9: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심은 죄가 아니라 義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생을 사는 환경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큰 환란"을 통과하게

하여 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전 5:5)

그들은 의롭다고 선언 받은 인간의 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언약에 따라 인간으로서는 죽고 **새로운** - 영적- 피조물로서 살아난 것으로 **간주하셨다**. 그러나 자기희생을 한다는 언약을 끝까지 실행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왕 겸 제사장" 지위 --그리스도의 **몸**--에서 단절되게 하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15:2

이들은 매우 불쌍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들은 상을 놓쳤다. 그러므로 신의 본성을 얻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완전한 인간성으로 **회복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헌신하였을 때 모든 인간적 권리와 특권을 영적인 것들과 **신의 본성**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기회와 교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욕의 무서움, "진영" 밖--광야, 혹은 분리된 혹은 죽은 상태--에서 어린 수소와 주님의 영소가 당한 휘방의 무서움)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실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전통과 견해가 무서워 종노릇하면 항상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들은 죽기까지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망설인다.- 히 2:15

대제사장의 은고로 이러한 큰 무리는 "큰 환란"을 겪게 하여 육신을 **열하게 한다**. 이것은 그들을 스스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거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몸의 구성의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큰 고난"의 경험이 그들을 왕 겸 제사장의 **보좌 위에** 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질서인 가장 높은 영적 질서는 아니지만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 "보좌 **앞**"에 서는 지위를 주실 것이다. 그들이 불멸성을 뜻 하는 생명의 **연류관**은 받지 못할 지라도 그러나 만일 환난으로 말미암아 옹계 연달되면 그들은 "천사와 같은" 상태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상징적 성전의 구성원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계 7:14,15

"아사셀을 위한 영소"로 상징된 이 계급은 세상과 분리된 광야의 상태로 "적절한 참나에 적절한 사람" -바람직하지 못한 주위의 사정- 에 맡겨 강제로 그쪽에 보내질 것이다[레 16:21]. 이는 그들이 광야의 상태에서 허무함과 기만과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의 절대 무가치함을 배울 때 까지, 그리고 모든 인간의 희망과 욕망이 소멸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지이다!"라고 말하게 될 때까지 역경으로 연단을 받기 위해서이다.

징계 받는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이 비록 세상의 기만적 미소와 세상의 헛된 명예, 명성을 갈망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언제나 당장 멸시하고 쫓아낸다.

"아사셀을 위한 영소"의 몸은 광야에서 **불에 태워지지** 않았다. 오로지 속죄제 희생 (어린 수소와 "주님의 영소")만 불에 태워졌다.(히 13:11)

속죄제 희생을 불에 태움은 불과 같은 고통의 시련 속에서 두 계급이 한결 계속적으로 순종함-"죽기까지 충실함(자발적인 희생)"-을 상징하였다. 두 계급은 모두 인간적 의지와 육체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첫 계급만이 자발적으로 죽는다. 그들은 번제 희생이 다 태워 없어질 때 까지 태워지는 상징에서 보여주듯이 육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서 완전히 태워버려진다. 두 번째 계급은 단순히 광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마지못해 죽도록 남겨두어진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그들의 새로운 영적 본성은 점점 자라나 생명으로 무르익게 된다. "주님의 영소"계급은 주님의 성령과 도움으로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인간본성을 죽여 버린다. "아사셀을 위한 영소"의 계급은 영이 구원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육체는 **소멸되었다**.

이러한 것이 머지않아 "아사셀을 위한 영소" 계급의 마지막 구성원에게 **현저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전 복음시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역사상 이 계급은 항상 존재하였으며, 많은 수의 계급이었다. 이 계급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육체의 **멸망**을 당함으로써 **강제로만** 자기 뜻이 죽게 된다. (고전 5:5). 두 영소로 상징된 두 계급들이 전 시대를 통해서 병행하여 발생되어왔다.

"적은 무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두 번째 휘장"을 건너 육체를 떠났을 때 신의 섭리, 즉 주님의 지배로 "[세상에 대해]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히 2:15) 모든 자들을 놓아주실 것이다. 이 옳아매어진 속박에서의 해방은 "아사셀을 위한 영소"의 무리들을 매이게 한 인간의 수많은 이론과 신념과 전통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을 훼방한 **이름뿐인** 교회 조직을 무너뜨림으로서 해방된다.

큰 상을 잃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안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서 강제로 해방된 "고난의 성도"들은 그 때에 대제사장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떼어 놓여 짐과 육체의 멸망의 광야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수의 **육인** 헌신한 **성도들이** 과거 어느 시대에 있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 세대에 걸쳐서 얼마쯤 존재하기는 했다.

두 계급(주님의 영소 계급과 아사셀을 위한 계급)의 모든 헌신한 자들은 큰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다. 그러나 첫 번째 계급은 그 큰 시련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인다. 즉 그들은 고통 받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 그들의 희생은 자신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자발적 희생**이다. 두 번째 계급에게는 그 큰 환란과 고통이 무겁고, 큰 고통이며, 아무런 기쁨 없이 -그들의 육체의 **멸망은 강요된다**. 그래서 경주의 종말에 그들의 위치와 상급에 비례적으로 차이가 있다.

속죄일 번제

"아론은 회막[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 ["성막 뜰"]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 희생과 백성의 번제 희생을 드려 자기[몸-교회 -"적은 무리"]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 16:23,24), 같은 속죄가 다른 관점에서 예증(상징)된다.

번제 희생은 두 마리의 숫양으로 드렸는데(3,5 절), 하나는 어린 수소를 대표하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염소를 대표한다. 이들이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이 드린 희생의 조화와 동일함을 나타낸다.-즉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아 그들은 모두 하나의 희생인 것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적은 무리]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 2:11

이것은 이 두 마리 희생들을 각기 다룸에서 더욱이 보여 진다. "번제 희생" 숫양들은 조각으로 잘리어서 물에 씻겨 저서 [몸]조각들을 단위에 놓인 머리에 접해 놓아 불태워 졌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번제이다. 두 마리의 숫양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평가로서는 이 두 수양 모두가 한 개의 희생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머리와 결합된 구성원들은 전체로서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죄인들 위하여 공의의 요구가 충족된다. --공의가 이루어진다.

속죄제 희생들이 구세주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증하였던 것 같이, 그래서 뒤따르는 번제는 **같은 희생**의 하나님의 받아드리심을 명백히 하셨음을 예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위한 희생들이 완료되고, 참 대제사장이 그분의 직분의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겉옷으로 입혀지실 때까지(의복을 갈아입은 데서 상징되었음) 수소와 염소들 보다 "더 좋은 희생"을 **받아들이심을 나타내시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마시다. 속죄제 희생을 드리는 동안 그는 단지 흰 세마포 옷만을 입었다. 그 후에(그리고 일상적으로) 대제사장이 화려한 겉옷을 입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존귀와 영예를 상징한다. 복음시대에 속죄제 희생이 진척되는 동안 영예가 제사장들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대 종말에 하나님께서 희생들을 찬성하시고 받아들이심이 희생들을 올린 제사장들에게 영광과 영예를 부여해 주시는 데서, 그리고 그들이 속죄해준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데서 겉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내시게 된다.

번제 희생은 "성막 뜰"에 있는 단위에서 불태워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몸(머리와 조각들, 즉 구성원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심을 "성막 뜰" 상태에 있는 모두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생을 기뻐하시는심을 믿는 자들에게 명백히 **나타내시기** 전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계급의 무리가 멀리 보내지고, 제사장의 겉옷이 가라 입혀진다.

희생의 일이 수행하는 동안 입은 흰옷이 **몸을 덮었으며** 이것이 몸의 의로움,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견해로 순결을 상징한 것과 같이 그 후에 입은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완전해 진후에,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한 후에 미래에 있을 교회의 위치와 일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 때 물로 씻는 것은 흰 옷("몸"에 귀여 된 의로움)이 이제 벗기어 졌다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책임을 다시 전가시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에 "몸"을 **완전**(지체들의 부활이 완성, 교회의 완성)하게 함으로 씻음의 완결을 의미한다.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은 영광과 영예와 신의 본성으로의 첫 부활의 불멸성을 상징한다. 그 위에 깨끗이 씻음은 속죄를 받은 사람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순수성에 들어붙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이러한 형태의 제사장 직과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의 과정이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 (레 16장)중에 우리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몇 절을 엿보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려고 한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특별한 날["속죄일"]에만 적용되었다. 사도 바울 말씀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성막 칸["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러나 ["속죄일"]에] 둘째 성막 칸["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히 9:6,7 이것이 "속죄일"에 매년 지켜졌다.

참된 성막[성막의 실체]의 특권들은 대제사장의 몸의 지체들인 제사장들에게만 속한다. --들이 현재같이 첫 성막 칸의 하늘의 상태[성소 상태, 곧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마음이 있는** 상태]에 있거나 우리가 곧 들어가기로 소망하는 둘째 성막 칸에[지성소 상태, 곧 완전한 영적 상태에] 있을 것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 너희가 **육신[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롬 8:9

레28절 "그것들[수소와 염소 속죄제 희생]을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위 성구는 예수님(수소)과 그의 "적은 무리"의 **인간성**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죽이는데 주적으로서 도구가 된 그들은 그것 때문에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고 행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들은 씻고 정하게 되어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즉 세상 나머지와 같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세상 나머지는 모두가 유전적인 죄인들이고, 아담의 타락과 죽음으로부터 대속되었으며 위대한 대제사장의 재림과 그 때에 모두에게 베풀어지게 될 축복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레26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며"

위 성구는 고통을 끼치어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상징된 "큰 무리"에게 결과로서 일어나는 **육신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데 도구가 될 그들에게 관하는 같은 교훈을 가르친다.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들 악한 짓들에 대해 특별한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들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있게 될 것이다.

"속죄일" 희생들을 따르는 축복들

이렇게 전형적인 "속죄일"은 끝났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죄에서 깨끗이 씻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더럽혀졌거나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 된 것으로 간주 되었다. 공의가 이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화해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계셔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안식과 평화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을 깨달 명하신다.

실체 "속죄일"은 복음시대이다. 이 시대에 예수님과 "그분의 몸"(구속되고 의롭다함을 얻은)이 산 희생으로 바친다. 따라서 공의에 대한 만족이 아담의 죄를 위해 마련된다. 화해의 작업이 완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류를 인지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두실 것이다.

따라서 기록된 대로 성취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영광을 입은 교회]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계 21:3-5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거주, 곧 성소가 사람들 가운데 설치됨의 결과로서 생길 것이다.("내가 나의 발 돌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사 60:13, 66:1) 그럼에도 차후의 축복의 일은 점차적으로 성취되며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는 천년통치기간이 요구될 것이다. 즉 아담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없애고 모든 눈물을 씻어 버리는 과정이 천년시대에 진행 될 것이다. 이것은 왕 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 될 것이나, 천년통치 끝에 가서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류를 완전한 존재로 이끌고 여호와와 충만한 조화를 이루는 점진적인 과정은 "속죄일" 후에 드렸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희생들 가운데서 잘 예증되고 있으며, 우리가 곧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이 전형의 실체는 천년통치기간에 성취 될 것이다.

이들 전형적인 제사들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복음시대는 인류의 일반적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속죄일"이라는 것과 전형에서 "속죄일" 후에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복음시대가 끝난 후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 될 수 있을 때인 --천년통치기간에 --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함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화해**에는 두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공의의 **화해**, 따라서 아담과 그의 후손을 그의 죄로 인하여 정죄하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로 죄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의 **화해**,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이다. **화해**의 단계의 첫 번째 것은 오로지 제사장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의 화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해이다. 원하는 수만큼의 인류를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는 일은 "왕 겸 제사장 직", 즉 영광스럽게 된 왕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음 시대에 성취 될 것이다. 모세에 의해서 전형된 이 왕 겸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일으키실 큰 선지자일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명이 끊어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행 3:23

그러나 확실히 다음사실을 이해합시다. 비록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성도들이 "주님의 염소"로 상징 된 바와 같이 세상을 위하여 **속죄제 희생의** 성원으로로서 참여하도

록 허락되었을 지라도 이는 그들이 세상보다 천성적으로 더 순결하거나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정죄되었으며, 그들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롬 3:10)라 하셨으니 아무도 **상응하는 대속물**이 되어 그 형제를 위하여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49:7

그들은 기쁨으로 죄를 위하여 제사에 참여한다. 그렇게 함으로 약속 된 신의 본성을 예수와 함께 나누고 그분의 동료가 되고 공동 상속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먼저 그들에게 적용시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 하시고 깨끗이 씻기셨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은 **그의 죽음**이다.

제 5 장

속죄 희생들의 또 다른 전형

레위기 9장

속죄 희생들이 각기 다른 세부들로 다시 진술되었음 -모세와 아론이 장막에 들어갔다 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 -속죄제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명시되었음.

이 장에서 우리는 속죄일의 일과 희생들에 대하여 레위기 16장에서 검토해 본 것보다 좀 더 간결 된 그림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먼저 상술한 것에 비추어 우리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흥미로운 어떤 특징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것은 속죄제 희생들의 또 하나의 그림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 희생과 네 번째 희생을 드려서 너를 위하여["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속죄가 요구되었음], 백성[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와 명대로 하라" 레 9:6.7

이 전형은 우리 주 예수(죄를 위한 어린 수소 희생)께서 "그분의 몸"인 "적은 우리"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예증해준다. 교회의 속죄제 희생에 관여는 전적으로 없이 때우실 수 있으셨다: 우리는 "좁은 문"의 특별한 시험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고, 희생적인 고통도 면할 수 있었을 런지 모르고, 모든 인류가 완전한 인간본성으로 회복 될 것과 같이 완전한 본성으로 회복 될 수 있었을 런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희생[목숨을 버리기]의 일을 위하여서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몸인 교회"의 수장 즉 머리로 만드셔서 그들의 수장 뿐 아니라 이들 몸이 속죄제 희생들로 육체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영적 존재로서** 완전케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셨다. 히 2:10; 골 1:24

사도 바울은 우리의 머리와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성소"와 "지성소"]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4,6)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살 후 2:14) 이로써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딤후 2:12

대제사장은 그 자신의 제사를 **단 한번** 드린 후에, "또 백성의 예물[염소]을 드려서 그들[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와 명대로 하라."[레 9:7] 우리의 속죄의 희생에 관여를 위한 조정은 사도 바울이 증언한 바와 같이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자 원래의 계획이었다. 골 1:24-26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자기 대리로] 속죄제 희생 어린 수소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 등을 단 위에 불사르니,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수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아론의 아들들]이 또 번제 희생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 희생 위에 불사르니라." 레 9:8-14 (16장에서와 대차가 없으며, 같은 의미를 가짐)

그래서 예수님의 번제 희생은 복음의 시대를 통해서 불살라지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드리심과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단 위에 머리에 대어 벌여 놓인 몸 조각들)을 기꺼이 받아드리심의 증거를 "성소"상태(의롭다고 선언 받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첫 번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속죄제 희생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즉 그가 수송아지를 취급한 것처럼 염소를 똑같이 취급했다.

이 염소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주님의 염소"와 같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다른 특징들은 레위기 9장의 더 대체적인 견지에서 생략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속죄제 희생에 관여하는 자들이라는 가르침의 또 하나의 확증이다. 레 9:15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 희생에 더하여 단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 수소와 숫양을 잡으매" 레 9:16-18

화목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맹세와 서약을 상징한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속죄제 희생과 관련하여 드러진다는 것은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진 맹세들과 서약들과 계약들이 속죄제 희생에 근거함을 의미한다. 이 전형에서 화해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확립되었다: 속죄제 희생을 드렸고, 또한 속죄제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 드러졌음을 나타내는 번제 희생도 드렸으므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담의 죄가 상징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속죄에 근거한 언약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 의무가 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다. --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인하여 **살 것이다**.(법을 지키는 보상으로) 그러나 우리의 속죄제 희생이 전형적 속죄제 희생보다 나은 것 같이, 더 나은 속죄제 희생에 근거해서 성립된 화목제나 언약도 더 좋은 것이다. 즉 더 좋은 언약이다. 그리하여 화목제 희생 즉 언약의 희생을 드리는데 있어 제사장은 전례로써 그리고 **영적인** 일들의 그림자로서 섬기는 것으로 보인다.-- 즉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히 8: 6-13) 그 중보자 아래에서 모든 인류가 **회복**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완전한 율법에 순종이 가능케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케 될 것이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 오니라" [레 9:22]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전형 가운데 예증되었

음을 깨닫는다. 모든 제사장들의 희생들이 끝날 때까지 **축복**이 백성들에게 내릴 마땅한 때가 아니나 우리 모두가 "지성소" 즉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도의 축복이 심지어 **현재** 희생시대에 제사장 구성원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온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 왕 겸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축복이 얼마간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이웃들에게 흘러나옴이 뚜렷하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이 희생하는 날(시대)이 끝날 때, 완성된 제사장(머리와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백성(세상)에 대하여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증언할 것이다. 레위기 16장의 전형에서 속죄일의 행사를 나누고, 어떻게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가치가 있게 먼저 만들어 주는가 하는 모든 상세를 보여준 반면에 이 9 장의 전형은 복음시대의 전체 행사가 연속하는 예물들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하나로 연합된 것임 --즉 전체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들이 끝난 후 회복의 축복이 단번에 뒤따를 것임 --을 표시해 주었다는 것이 알아질 것이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완전히 만족되었으며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전형에서 모세에 의해 상징된 율법은 율법 아래서 정죄 받은 모든 자들도 역시 "자기를 단번에 드리신"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은 얻어 삶을 얻었다는 것을 율법아래 있는 자들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다.

희생물들 전부가 드러졌을 때,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하였다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지성소의 문지방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로써 증명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밖으로 나와 **함께** 백성을 축복했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시대에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할 것이다. (갈 3:8, 16, 29; 창 12:3);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 하고 죄를 변명해 줌으로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간의 완전성으로 회복시킴으로서 축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들에 의해 축복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즉 순종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순종하고 행복과 여호와와 교제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류를 회복시키고 향상시키면서 축복이 증가됨에 따라 결과들이 분명해질 것이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상 --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매일 더욱 더 인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사 40:5)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차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축복은 하위-제사장들에게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그들(하위제사장들)은 축복자인 아론에서 나타내졌다. 그 축복은 전형에서 세상을 나타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내려졌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모든 고난이 몸에 의해서 채워진(골 1:24) 후에 "씨" --그리스도 전체 --에 의한 세상의

축복이다. --그것이 바울이 언급한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한다.(롬 8:22)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롬 8:19)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 아들인 아담이 즐겁게 맛보았던 것 같이(눅 3:38) 그들이 타락(죄악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자유(정죄와, 죄와 죽음, 등으로부터의 해방)로 복귀를 경험할 수 있기 전에 속죄일 희생이 끝나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옷을 갈아입음은 왕의, 하느님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며 따라서 그들을 해방시킨다. 롬 8:19-22.

의심할 바 없이 모든 백성의 똑같은 축복--죽음과 사망의 쓰는 것, 즉 죄로부터의 구원 --이 바로 바울이 언급한 축복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다시 속죄제 희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죄인들을 위해 담당하신 죄들로 오는 오염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28) 세상은 대제사장--머리와 몸--이 이 시대에 속죄제 희생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아왔다. 예수는 속죄제 희생으로서 유대인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났으며,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후 4:11)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육체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역시 세상 앞에서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와의 영광[축복과 구원]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기 때문이다[사 4:5]. 그가 나타나실 그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골 3:4)

그러나 세상의 이 위대한 대제사장은 단지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인지될 것이다. 만약 그분이 공중에나 혹은 또 어떤 곳에 육체의 인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분을 고대하든지 고대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가 우리의 수장께서 영적 존재로 완전하게 되셨으며, 그분의 "적은 무리"도 "그분과 같이" 어느 누구든지 본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신의 본성의 영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딤후 6:16)

세상이 영광스럽게 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방법은 우리가 눈먼 사람이 본다고 적절히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정신적인 식별에 의해서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상, 즉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바라본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 이러한 방식으로 이 시대의 교회 전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왔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히 12:2, 2:9)

그리하여 "파수꾼들"은 깨달는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때가 이르면 주

님의 임재를 분별한다. 나중에 이 세상, 각인의 눈이 똑같은 식으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의 "타 오르는 불" 빛에 의해서. 살후 1:8

이러한 방식이 인간이 영적 단계의 사물을 보거나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관념, 즉 그분의 영이나 정신을 인지하는, 그래서 이러하게 그분을 아는 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관념을 나타내셨다. "너희가 나를 "왔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8:19, 14:7) 이러한 의미에서만 이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만이 나타내셨느니라."(딤후 6:16; 요 1:18)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언행으로 밝히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시킴으로써 그의 제사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밝혀주셨다.

같은 방법으로 로마 교황제도가 루터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지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황제도를 적그리스도로 깨달아졌다. 또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교황제도를 적그리스도로 도대체 아직 **깨닫지** 못할지라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불법의 사람인 악한 제도가 그 당시에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비록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머리아신(보석들을 모으기 위하여 지금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적은무리"의 살아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때에 밝혀지신다. 눅 17:26-30; 말 3:17

따라서 그리스도 전체--제사장--가 나타내 질 때 천년통치기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분은 단지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것이며, 그들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육안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들--우리의 주 예수, 아버지, 상들--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단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는 영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여호와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적은무리인] 우리는 그분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분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3:2

그러나 비록 단지 "그를 찾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구속자로 인지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모든 세상을 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타내시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모두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인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계 1:7); 그리고 무덤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 때에 깨어나질 때 그분을 찌른 자들(숙 12:10)조차도 그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분은 불꽃 [심판]중에 나타나시어[하늘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살후 1:7,8] 이런 환경가운데서는 모든 인류가 그 분을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지만, 그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 이러한 분별이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말 3:15-18) 그 때에 모두가 밝히 보고

그리스도와 새 언약 아래의 생명의 제안을 받아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셨기 때문이다. 딤편 4:10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

문맥에서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서에서 아마 어느 다른 성구보다도 더 자주 잘못 적용되고, 잘못 이해된 하나, 곧 우리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된 본문은 히 9:27,28 이다: "한번 죽는 것 [전형적으로 동물의 도살에서 상징 됨]은 사람 [아론과 그의 계승자들. 그들은 단지 새로운 창조자의 대제사장의 상징이었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이러한 희생들의 결과로 뒤따라] 심판[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승인하시느냐 승인하지 않으시느냐 하는]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바[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죄를 담당함으로 인해 더럽혀지거나 속죄제 희생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 즉 믿음과 순종에 대한 규약을 지키는 가운데 열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히 9:27,28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희생이 불완전했다면, 그가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할 때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이 "지성소"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그의 불완전한 희생이 백성들의 죄들을 위한 속죄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실수도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고, 그가 화해시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정죄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언급된 "**심판**"이었다. 이 심판을 전형적 제사장들이 매년 통과해야 했다; 제사장의 생명과 매년 행해진 백성의 죄에 대한 전형적 속죄는 심판을 호의적으로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때 상징적 둘째 휘장을 통과하셨다; 만일 그분의 희생이 어떤 방법이나 도에 있어서 **불완전** 하였다면,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지 못하였을 것이다.--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 불리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희생이 완전하게 수행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로서 신[하나님]의 "**심판**"의 시험에 합격하셨다. 행 17:31 참조

우리의 주께서 "**심판**"을 성공적으로 단번에 통과하고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더 큰 증거는 오순절의 축복으로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 증거는 미래의 더 큰 축복하는 것과 모든 육체에게 부여되는 것의 예기였고,(골 2:28) 궁극적으로 주께서(주 안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러 오실 것이 대한 보장이며 확신이다. --그들의 죄는 그분이 이미 완전히 속죄해 주셨음.

이 성구를 인류의 일반적인 죽음에 적용하는 해석은 문맥과 완전히 모순되며 관계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때가 [죄의 저주와 사망과 일반적으로 악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올 것을 막연히 기다려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지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속죄일"의 **희생**이 필요하며 영광과 축복이 올수 있기 전에 희생이 완성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선택된" 교회, 즉 "적은 무리"가 뒤에 따를 영광중에 동료가 될 것과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고통에 동료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교회]이 나타나는 것을 [비록 무식하게지만] 기다리며...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롬 8:19,22.

더욱이, 전형의 제사장은 실제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머리"뿐 아니라, "몸"을 상징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1) 교회의 각각의 구성원들은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2) 비록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을지라도 죽기까지 충실한 "이기는 자들"(계 3:21) 외에는 아무도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몸의 마침내 받아드려질 수 있는 "구성원들"로 **택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육체의 완벽함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의도에 있어서 완전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해야"(마 5:8) 한다. -- 비록 현재의 보석 상자는 불완전한 토기에 불과할지라도 그 보석은 흙 도가니에 단련된 정금이어야 한다.

신(하나님)의 받아드리심이 명백해지게 되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의 번제 희생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경배하였다. 이것은 다른 형태로 표현된 같은 사고이다. 불은 하나님의 받아드리심을 상징했다. 백성들에 의한 그것의 인식은 세상이 그 희생과 하나님의 평가로 그것의 가치를 죽음과 무덤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대가로서 깨달을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대행자인 제사장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께서는 종대한 속제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불로서 아직 **나타내시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아직 소리를 치지 않았고 만군의 왕과 그분의 대행자를 경배하며 땅에 엎드리지 않았다. 결코 아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며 (요일 5:19), 이 세상의 신이 대략 거의 모든 인류의 눈을 아직 어둡게 하며 (고후 4:4), 어둠이 아직 땅을 덮고 --흑암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사 60:2)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몸"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먼저 부활의 변화에 의해 두 번째 휘장 (실제 죽음)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까지 이 전형에서 예시된 거대한 회복의 축복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전형의 "축복"은 대 환난기간 후 까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징계 받고 근신해지고 겸손해진 세계의 인류는 그들을 축복하고 양양시킬 아브라함의 씨인 위대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할 것이다.

이들 전형이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속죄 희생과 모든 백성에게 가능하게 된 회복과 축복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르치는가!

전형에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전혀 식별하는 것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대

제사장의 제사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될 때, 다만 그 때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큰 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으며 그는[하나님] 그들 모두를 죽은 자로서 생각하신다.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음의 **선고** 밑에 떨어졌다. 지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의 작은 생기는 사실 죽어가는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는 아담의 죄 때문에 지금 죽은 인종이다. 그러나 이 "속죄일" 전형의 실체가 종결될 때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축복과 생명이 모두가 복종할 수 있게 될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아담이 잃었던 모든 것 --생명, 자유, 하나님의 사랑 등등--을 구세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즉 죽는 고비에서 질질 끌고 있는 자들--"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뿐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들에게도 확장될 것이다.

실체 속죄제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백성", 모든 인류를 죽음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는 것. 그들을 완전한 행복과 창조주와의 **화해**에 불가결한 완전한 인간 존재로의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오게 될 축복이다.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좋은 소식]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모든 인류]이 너를 인하여 복 [의로 인정하다]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씨는 그리스도[첫째로 머리, 그리고 둘째로 몸]를 말한다.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성원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지니라.(갈 3:8,16,29) 그러나 전형에서 이제 방금 고려한 바와 같이 축복이 오기 전에 이 "씨"가 완성되어야 한다. 즉 모든 속죄제 희생이 끝나야 그 결과로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다.

대제사장이 **홀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제한이 그와 하위제사장들이 다음날들에도--속죄일에 죄에 대해 완전한 화해를 이룬 이후--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반대로 대제사장은 속죄일 이후에 지성소에 자주 들어갔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 등에 관해 우림(빛)과 둠뫼(완전함)의 심판의 근거를 사용하여 여호와께 자문할 때 마다 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갔다. 또한, 진영을 철수 할 때마다, 이러한 일은 종종 발생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휘장"들을 걸어내고 언약궤와 모든 성스러운 용기들을 포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운반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민 4:5-16

또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희생을 제사장들에게 바쳤을 때마다 ("속죄일" 희생이 끝난 이후에), 그들 모두가 "지성소" 안에서 함께 음식을 섭취하였다.(민 18:10) 현재의 "속죄일"이 끝난 후에 실제 대제사장 경우도 그렇다. 즉 "왕 겸 제사장" 반열은 "지성소" 즉 **완전한 영적 상태**에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세상이 자신의 범죄("속죄일" 기간에 삭제된 아담의 원죄 말고)에 대하여 가져온 죄를 위한 희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먹을 것이다.) 이 완전한 영적 상태 안에서, 제사장 직분은 우림과 둠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결정들과 대답들로 상징된 것 같이 모든 일들을 지도할 것이다.

제 6 장

"속죄일" 이후에 뒤따르는 희생들

이러한 전형들은 천년통치기간에 있을 회개들, 서약들, 언약들, 등을 상징 -백성들의 번제 희생 -그들의 화목 희생 -그들의 소제 예물 -그들의 속건 희생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끝남이 전형에 나타내졌음

속죄일 희생들 후에, **백성들**(이스라엘-- 세상)이 자기들 각 개인의 발의로 바쳐진 희생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예물들로 상징되었으며 다음 시대에 속한 것이고, 그때에는 영광스럽게 된 왕 겸 제사장들에게 바쳐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아주 근소한 시작이 지금 있다; 그래서 물질적 부를 소유한 세상의 사람은 그 점에서 하나님의 것들의 청지기 이다. 그리고 그 "재물"을 지금 이용하여 그것으로 친구를 삼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 될 때(그때에는 그는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않을 것임), 그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를 축복할 것이다. 만약 세상의 부(재물 또는 이 시대의 신)의 청지기들이 현명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수단을 이러한 방식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장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시원한 물 한 컵을 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조직되고 그 통치가 시작될 때 결코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6:1-8; 마 10:42

우리가 부르는 "속죄일 희생들" 종류에 속하지 않는 희생들은 천년통치 기간에 속한 예물과 희생을 예증해준다.

전형에서 "속죄일" 희생은 다른 모든 것들 보다 먼저 일어나며,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용서와 하나님께서 받아드리심의 **근거**가 되었으나 개개인들이 바치는 "속제 희생", "속건 희생", 화목 희생" 등이라 부르는 다른 희생들은 속죄일 이후에 뒤따랐다. 이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실체의 경우에서도 그럴 것이다. 복음시대 희생이 "백성"(세상을 상징)을 의롭다 하심은 얻은 상태로 이끈 후에도, 여전히 회개와 화해가 요구될 죄와 범죄가 범해질 것이다. 따라서 [복음시대 후의] 추가적인 희생을 필요하게 한다.

속죄일 희생은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소멸됨을 상징 한다; 그러나 천년통치 기간에 속죄의 혜택이 일반 세상에 적용되고 있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실질적으로 완전함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조화에 이르게 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어느 정도 책임 질 과실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전에 그들은 회개를 동반하여 어떤 배상을 해야 한다.

헌신하는 것은 다음시대 (천년 통치 시대)에도 역시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세상의 변화된 정부로 인하여 헌신은 지금처럼 더 이상 **죽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살기까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악의 통치의

종결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고통, 슬픔 그리고 사망이 끝나기 때문이다. 헌신은 항상 자발적인 자신의 능력의 선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속죄일 이후에 바치는 어떤 희생에서 상징되어있다.

다음 시대에 모든 죄 사함의 근거가 "속죄일" 희생일 것이므로 전형에서 죄인이 새 용서의 근거로 "속죄일" 희생의 인정을 표시하는 어떠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일" 후에 백성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그 날(속죄일)의 희생들을 지적하거나 인정하는 종류의 것들임을 우리가 발견한다. 이러한 예물들 중에는 소떼나 양떼나 날짐승(비둘기나 산비둘기)이나 고운 밀가루가 있었습니다.--예물은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바쳐졌다.

천년통치 시대에 모든 인류는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담적인 죽음의 저주(정죄와 선고)로 부터 구원을 얻을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딤후 2:4) 우리가 이 죽음이 현재 인간이 종속되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불완전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완전성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안다; 그 때에 모든 사람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기회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자들만이 둘째 사망에 처해져 죽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성에 이르는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완전성에 이르고자 언제나 애쓰는 죄인의 의지의 협동이 요구될 것이다. 그는 다시 완전성으로 애써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필요한 보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예물에 의해서 보인다. 그러한 예물들은 각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

아무리 죄나 불완전에 의해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각자는 그가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는 예물을 바쳐야 한다. 전형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져온 비둘기는 의롭다 함을 받은 도덕적으로 부족하거나 타락한 모든 자들을 상징하며, 좀 더 능력 있는 자들이 바친 염소는 약간 들 타락한 모든 자들을 상징한다; 반면에 수소는 인간본성의 완전성을 획득한 모든 자들을 상징한다. 마치 속죄일 희생에서 수소가 예수님 희생의 완전한 인간성(훗씬 기름진)을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염소가 신자들의 불완전한 인간본성(마르고 야윈)을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물들은 헌신하여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이스라엘--천년통치 기간 믿게 되는 온 세상을 전형함)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미래의 번제 희생들과 화목제 희생은 헌신하는--그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속죄일의 희생들처럼, 속죄를 얻기 위한 속죄제 희생을 상징하지 않는다. 참으로 개개인의 속죄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되겠지만 속죄일의 나라 전체를 위한 속죄제 희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드리는 이 세상 인류들이 천년통치 종말에 완전성으로 이끌어졌을 때, 수소를 바치기에 무능력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의 결핍 --하다는 의미에서--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들의 예물은 수소로 전형된 그들의 완전한 자신들일 것이다.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말한바와 같다.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희생[옳은 행위의]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완전한 희생]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시 51:19) 그러나 다윗의 말을 문자 그대로의 피와, 전형적인 희생들을 회복시

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같은 시에서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주는 희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전형적인 거나 실제적인 거나--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그때쯤엔 "단 한번"만으로 다 성취 되었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들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6,17) 이 모든 희생들은 그것을 바치는 자들의 자유 의지와 열망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레 1:3

헌신의 완전성은 동물의 죽음에 의해서 보여 졌다. --즉 인류의 각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헌신 때문에 인간본성이 소멸(진영 밖에서 고기를 불사르는 일) 되거나, 그 생명을 새로운 본성으로 변경 --"지성소 안으로 옮김"-- 되지 않는다. 속죄일 희생에서 보여주듯이 단지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헌신할 때, 그들은 인간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며, 인간으로서 완전케 개선될 것이다.--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는 대제사장에 의해 사들여졌다. 모든 이겨내는 교회는 그의 몸의 지체로 상징된다. 헌신은 상응하는 대속물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롭고 호의 안에서 영원히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 하는 자들의 목종을 의미한다.

백성들의 번제 희생

제사장의 번제는 단 위에 계속 얹혀있게 되었고, 불은 결코 꺼지지 않게 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희생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를 그 위에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들지며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 6:9,12,13

따라서 단이 이미 신성화 또는 구별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속죄일 희생들을 받아드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예물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각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납득되었다. 이 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1장에 서술된 대로 자신의 자유 의지의 예물들을 가져왔다. 그것은 보통 식(규례대로)으로 드러졌다; 짐승을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서 조각들을 단 위에 머리에 대어 벌여 놓고 완전히 태워 달콤한 맛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 이것은[번제 희생] 그리스도의 상한 몸--그들의 대속물--으로 명백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와 사랑에 대한 인식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에 찬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해 주는데 이바지한다.

백성들의 화목 희생

이 예물은 소떼나 양떼에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원(계약)의 이행으로나, 자기 자신의 "감사 희생"으로서 바쳐질 수 있다. 그것의 일부는 드리는 사람에게 의해서 여호와께 드러졌다.--"여호와와의 예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희생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며 요제를 삼고"[30절], 제사장은 단위에 기름을 태울 것이고, 가슴을 주님 앞에서 흔들 것이다. 그러나 가슴은 어깨 역시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먹어야 한다. 레 3장, 그리고 7:11-18,30-34

이것은 다음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평화와 조화의 상태에 이른다면(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둘째사망에 처해질 것이다) 그는 예물을 먹어야한다. 즉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계약을 그분께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완전해진 후에 고의적인 죄로 다시 더럽혀진다면, 그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의 형벌에서 보여진 것 같이 죽어야 합니다.(**둘째** 사망) (레 7:19-21) 비교 계 20:9, 13-15.

이 희생과 더불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드리는 사람이 모방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신앙을 상징)과 그리고 누룩 있는 빵(헌신할 때에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나타냄)의 예물이 바쳐졌다. --누룩은 죄의 상징이다. 레 7:11-13

백성들의 소제

소제의 고은 밀가루, 무교병들, 기름 등 이것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께 바쳐졌다. 이것들은 아마 세상 인류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주님께 바치는 찬양과 경배를 상징 하였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1) 이러한 것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단 위에 바쳐진 견본은 소제가 여호와께 승인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나타내었다.

백성들의 속건 또는 속죄 희생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희생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리고 속건에 대한 제사장의 평가에 따라 지정한 금액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그의 예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를 드렸습니다. (레 5:15-19)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알면서 죄를 범하거나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을 사취한다면, 그는 본물에 오분의 일(20% 이자)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돌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 속건제로 수양을 끌어올 것이다. (레 6:1-7)

위 내용의 교훈은 모든 피해는 이자와 함께 변상되어야 하며, 회개를 동반하여 주님께 교회(제사장 반열)를 통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범죄자 자신의 불완전성과 대속의 가치에 대한 인정은 바쳐진 수양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속죄제 희생들과 "속죄일"의 속죄제 희생의 취급 방식 사이에 차이점을 유의합시다. 후자는 "더 나은 제사"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공의)께** 바쳐졌으며, 전자는 속죄일 동안에 백성을 구속한 **제사장들에게** 바쳐졌다. 백성들의 고백은 그들의 구세주에게 드러질 것이다.

실로 제사장은 예물의 부분을 취하여 "기념물"로 주님께 바쳤다. 이것은 속죄일(복음시대)에 실행된 전 구원의 계획은 하늘의 아버지의 것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신(제사장)이 먹었다, 즉 제사장이 사유하였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인간생명)로 사들여진(구속된) 온 세상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을 "왕 겸 제사장"에게 바칠 것이다. "왕 겸 제사장"이 그들의 선물과 헌

신을 받아들이심은 **용서**를 의미할 것이다. 이것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일치 한다: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20:23

이 "화해의 직무"는 온전한 의미에서 다음 시대(속죄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을 때)에 속한 일이지만, 심지어 현재에도 "왕 겸 제사장"의 구성원이라면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믿음으로 죄를 위한 희생의 완성을 고대하시면서 우리의 머리가 말씀하셨듯이; 더군다나, 이러한 제사장들은 용서가 약속되어 있는 조건들을 현재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건들이 따라졌을 때마다 는 언제나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속죄일의 희생들은 항상 불살라졌다.(레 6:30; 히 13:11) 그러나 속죄일 이후에 바쳐진 속건 희생은 불살라지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었다.(사유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그치게 됨

"속죄 희생[속건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죄를 위하여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레 6:25-29

주님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은 성서에서 **남성**으로 칭되는 반면, 모든 성자들은 함께 우리 주님에게 남편으로 정혼된 "**처녀**"인 여성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인간 여성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성의 일부분이었으며, (비록 인간 번식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일부분이다.--어느 한쪽 혼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완벽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듯이 또한 두 몸으로 나누었을 때도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머리됨은 남성에게 남아있게 하고, 따라서 그를 자기 자신의 몸의 일부로서 여성의 관리자나 보호자로 만드셨다.(엡 5:23,28) 이러한 성적 분할은 아담을 불완전케 만들지 않았다: 성적 분할은 그의 완전성을 단순히 두 몸 사이에 분할하였고 그가 여전히 "머리"였다.

성서는 "회복의 시대"가 끝날 때쯤엔 (남성과 여성) 모두 완전한 상태 --하와가 아담으로 부터 분리되기 전에 아담으로 상징되는 상태--로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지시한다.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상실하리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 지금 부족한 특성을 충족해서 동일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정확한 것이라면, 다소의 여성의 극도의 섬세함이나 다소의 남성의 극도의 조잡스러움은 타락으로 일어난 일이며, 남성과 여성의 요소들이 완전히 뒤섞여지고 조화를 이루는 완전성으로의 **회복**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상적인** 인간성일 것임을 함축한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때 그는 아마도 조약하거나 억세거나 여성적이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에게는 강한 정신력과 남성다운 숭고함이 고상한 순결함과 참된 여성다운 부드러움, 우아함과 가장 쾌적하게 **조화**되었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고 양성을 구원해 주신 **완벽한 인간**이셨지 않은가? 예수께서는 **일개인**으로서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홀로 아담 (남성과 여성)을 위해 완전히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시기 위해

서 그분 자신 자체에 완비되었어야 하지 않은가? 따라서 하와는 위대한 대속물[예수님]가운데 표시 되었거나 그녀의 "머리"로서 그녀의 남편에 의해 표시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 하와는 대속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생각은 다른 성서들과 모순된다.

복음교회는 성서에서 "신부"로 칭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부활하여 지극히 높여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칭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영적 본성인 새로운 피물로서, 우리는 영이신 예수님과 약혼되어 있고 그분의 이름과 명예와 보좌를 나누어 가지게 되어있다. 교회는 희생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의 신부이다.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님은 재림 때 그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신다. 롬 7:4

다음 시대의 남녀의 관계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즉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후 모든 여성성이 없어질 것이다.--"우리(그분의 몸의 구성원들)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요일 3:2] "그 성은 [그녀는 그때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녀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입으리라" (렘 33:16; 23:6) 왕 겸 제사장 인위대하신 예언자의 몸으로서 교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혹은 생명을 주는 자의 부분일 것이다. 사 9:6

이 똑같은 사상이 전 성경을 통해 따르고 이다; 제사장 지파의 남자들만이 희생을 드리고 위에 언급된 대로 속건 희생을 먹었다; 그리고 그들만이 성막에 들어가고 휘장을 통과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시대를 위한 성령의 조정에 "그가 실로 혹은 사도로[남성], 혹은 선지자로[남성],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남성]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다야글롯)

위에 언급된 **남성**이란 말이 희랍어 원문에 나타나듯이, 영어성경에서도 나타나야 하며 주님의 임명들과 사도들의 임명들은 일치한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라고 사도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딤후 2:12)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현재 관계를 예증한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러한 관계가 이 시대의 종결과 동시에 그칠 것이다. 그 때[다음시대]에는 이기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과 실제로 "형제들"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 자매들이 동등하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왕 겸 제사장**"의 구성원들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의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형제로서 동등하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모든 성별과 인종과 신분의 구별이 무시되기 때문이다.(고후 5:17; 갈 3:28); 그러나 전형, 비유, 학습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임무의 특별하고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엄밀히 유지되어야 한다.

반면에 악마(사탄)는 남자가 여자에게 품고 있는 사랑과 동경을 통해 종교적으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항상 추구하였다. 따라서 가톨릭 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여신의 반열로 올려서 경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 사람에게도 역시 아이시스가 여신이었고 그 보다 이후인 사도 바울시대에는 다이아나가 에베소 사람들의 여신이였다.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에덴동산에서처럼 여자를 상대하려고 하고 여자를 통해서 해보려고 꾀하고 있지 않는가? 여자가 심령술에서 사탄의 우두머리 매개자이고 견신론이나 크리스찬 사이언스에서 우두머리 사도요 선지자가 아닌가?

사탄이 여성을 그 자신의 대변자로 받아드림은 여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서의 율법이 인식되고 존중되는 나라에서와 그리고 성서적인 율법을 가장 신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성들은 아주 높은 사회적인 지적인 수준에 놓여 있으며 그들의 참된 여성다움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의 희생

"오 나의 거룩한 주시여 당신의 단에 바치오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선물을 오늘 받으소서,
 저는 당신의 성당을 장식 할 보석도 없사오며,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는 희생도 없나이다;
 그러나 제 떨리는 손으로 여기 가져왔나이다,
 내 이 뜻은 조그마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주여 당신만이 이해하실 수 있나이다.
 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졌는지를

"거기에 숨겨진 것들 당신의 눈길만이 보실 수 있나이다.
 열정적인 투쟁들, 환희의 전망들,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깊은 사랑, 즐거운 희망, 그리고 무한한 사모들.
 지금까지 눈물에 젖고, 한숨으로 시름하였으나,
 고통 중에 인내하리라, 아름다움이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때까지
 이제, 허언을 극복한 당신의 발등상에서
 기도가 울려 지나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용기가 좌절되기 전에,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것이 점차 당신의 뜻으로 바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제가 결코 그것을 취소하기를 바라지 않도록,
 마음과 용기가 약해질 때 나는 당신께 날아가리라.
 당신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순결하게 해 주소서,

나의 의지를 신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꾸미소서,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모르거나 안 느낄지도 난 모르겠나이다,
 그러나 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알아보소서"

제 7 장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히브리서 9:13

속죄일 희생들 중 하나가 아님 -백성을 위한 속죄일 후의 희생들 중 하나가 아님 -이 희생으로 상징된 계급 -실체에 관하여 목격하고 증거 하는 하위-제사장 사도바울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재를 뿌리는 일은 천년통치 기간에 있을 것이다. -죄를 씻는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법의 율례의 한 가지 특징은 흠 없고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잡는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희생들의 하나도 아니고 속죄일 이후에 백성들이 바친 예물들도 아닌, --실로 그것은 전혀 "예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도 주의 단에 바쳐지거나 제사장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암소)을 잡았으나 속죄일 희생이나 이후의 백성들의 희생과 같은 의미에서나 같은 장소--성막 뜰--에서 잡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잡아지지도 않고 그것의 피가 성소와 지성소로 옮겨들어 가지지도 않았다.

붉은 암소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서, 그곳에서 잡아 고기, 기름, 가죽, 피 등 모든 것이 재가 될 때까지 불태워 졌다. --다만 제사장이 성막 앞쪽을 향해 일곱 번 뿌린 약간의 피를 제외하고는. (개정판과 Leeser) 암소의 **재**는 지성소로 옮겨지지 않고 진영 밖에 남겨져 더미에 쌓여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얻기 쉽도록 되어 있었다. 율법의 규정 하에 재의 일부는 그릇에 담아 물과 섞여, 우슬초 다발을 이 혼합물에 담가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정화하기 위하여 그들 개인이나 그들의 옷이나 천막 등에 뿌리는데 사용되었다.

이 복음의 시대의 더 나은 희생(왕 겸 제사장, 즉 머리와 몸인 그리스도 의해 완성된)을 예시한 속죄일 희생에 관하여 보아온 것에 비추어, 이 암소는 어떤 의미로도 이것들에 관련되지 않았고 현재 이 시대의 희생을 분명히 전형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그것은 속죄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받아들여진 어떤 종류의 희생고도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보여준 것은 천년통치 기간에 백성들이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과 주님께 자신들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소를 불태우는 것은 제사장들에 의해 성막 뜰에서 잡아진 어느 모든 희생들에 관련이 없다. 붉은 암소의 실체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아야한다. 왜냐하면 만약 암소가 어떤 의미에서라도 제사장을 상징하였더라면 그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암소가 제사장중 하나에 의해 도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붉은 암소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어떤 계층 혹은 사람들이 붉은 암소에 의해서 "진영" 밖에서 고통을 당한 것으로 상징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고통이 천년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이 하고 정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왕 겸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계급이 의를 위하여 "진영" 밖에서 고통을 당하였다고 우리는 대답한다. 이들과 그들이 견뎌낸 불의 시련들의 간단한 역사적 기록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남겼다.

다수의 믿음을 자세히 얘기한 후에 이들 몇의 공적들을 바울은 말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32-38

여기에서 붉은 암소에 대한 기술에 적합 하는 계층을 본다.--그들의 목숨을 "진영" 밖 상태에 던진 계층; 모든 점에서 존경할 만하지만 제사장 계층이 아닌 계층이다. 대제사장의 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계층은 속죄일의 속죄제 희생과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성소나 지성소로 상징된 영적인 상태에 들어질 수도 없다. 이러한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왕 겸 제사장직" 구성원들이 아니었다고 그만큼 확신적으로 우리가 언명 하면서 그들보다 더 충성스럽지 못한 복음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왕 겸 제사장직" 구성원들이라고 마찬가지로 확신으로 우리가 언명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것같이 보일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이러한 선조들의 충실함에 대한 이야기와 바로 관련하여 여러 마디의 말로 언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11:39,40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오는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레위인 실체는 있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 실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렵진 않다.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시고 우두머리 제사장이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으며 누구든 그분의 형제와 왕 겸 제사장직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 전에 자신의 "몸"과 "집"의 **흠**을 속죄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자신께서 이 일에 관하여 매우 명백하게 언급하시고, 자신을 앞서간 충실한 사람들과 자신의 이후에 뒤따를 충실한 사람들--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그분의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사이의 경계선을 간명하게 지적하셨다.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 11:11)

침례자 요한은 "진영" 밖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한 이 붉은 암소 계층에 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속죄일 동안 왕 겸 제사장들의 더욱 더 나은 희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왕 겸 제사장들의 기름과 내장 기관들은 "성막 뜰"에 있는 하나님의 단에 바쳐졌고, 그들의 피는 "지성소"안으로 가져 들여졌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들, 즉 "교회", 그분의 "몸"의 구성원들, 그리고 만물의 공동 상속자 까지

되는 그들의 희생의 특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어떤 점에서든 속죄제 희생의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씻어내기**와 관계가 있다: 진리의 물과 섞어 죄를 씻어내는 우슬초로 뿌린 그것들의 재(죽기까지 충실한 그들의 지식과 경험)는 가치가 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자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히 9:13]

그러나 그들 자신으로 과거에 충실함[굳은 믿음]의 이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죄일의 속죄제 희생을 통하여 그것과 관련함으로써 가치가 있게 된다. 그것에 사도 바울은 같은 점에 대하여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참고로 말한다. 그리고 (붉은 암소의 **재**로 상징된)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의 충실[굳은 믿음]의 기억들과 교훈들은 현재 우리를 거룩케 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천년통치 기간에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이 세상 일반 인류에게 적용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 중 가장 큰 자라도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 보다 신분이 낮은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왕국 아래에서 왕국의 대변자와 대표자로서 높은 위치와 구별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하나님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심판 때 대항자들이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해 주는 통로들인 "온 세계의 군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의 충실함[굳은 믿음]은 붉은 암소의 모아둔 재에서 상징되었다. 재는 미래에 쓰기 위해서 경험, 믿음, 순종, 신뢰 등의 유익한 교훈들 저축해두어 다가올 시대에 죄를 씻김을 바라는 세상의 인류에게 적용될 때 그들을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할 것이다 --이것은 속죄일 희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되며 그것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시 45:16

암소를 태우는 일은 한 제사장에 의해서 **목격되었으며**, 이 제사장은 삼나무와 우슬초 가지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졌다.[민 19:6] 우슬초는 정화 즉 죄를 씻는 일을 상징할 것이고, 삼나무 즉 상록수는 영원한 삶을 상징할 것이고, 홍색 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를 불길 가운데에 던져 넣는 것은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에게 쌓인 치욕을 함축할 것이다. 그들은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한 것이다. 그들 중에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으며, 귀중한 피의 공로와 진리로 죄의 씻김과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것이라고 여겨질 영생의 선물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받아드려진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암소를 불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인정하고, 승인하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문 방향으로 뿌린 **하위제사장**(주님 예수를 상징하는 아론이 아니라)은 붉은 암소 전형의 실체를 밝힌 것 같다. 여기에 있어 위대한 하위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를 의미함) 속죄일의 속죄 희생을 우리에게 밝혀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지적한 데에서(히 11장) 우리로 하여금 붉은 암소 희생이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의 전형이라고 밝힐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의 피를 성막을 향하여 뿌렸고 그들의

생이 성막의 상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받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므로 비록 왕 경 제사장으로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 아니었긴 하지만.

붉은 암소가 멩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붉은 암소는 의롭다 하심은 얻은 사람들의 계층을 상징한다. --율법의 언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대부분의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율법 계약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것의 조건과 육체의 불완벽에 인해 정죄에 율법적으로 종속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자녀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글에서 완전히 증명되고 확증되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잘 하였도다 하신 판결,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거이며 그들에게 약속하신대로 축복하신 것의 증거이다. --비록 이러한 축복들이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 받을 수 없었긴 하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하고 아브라함의 영적 씨--즉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야 한다.

이 희생이 수소가 아니라 암소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오직 수소로만 드리는 위대한 속죄일 희생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붉은 암소**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들이 위대한 속죄일의 희생들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긴 하였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같이 보인다. 위에서 비추었듯이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씻어짐 또는 의롭다함을 얻음은 다른 방법으로 보여 졌다.

죄를 씻기 위하여 붉은 암소의 재가 지적된 것은 독특한 종류의 죄였다. 즉 특히 **죽음과** 접촉한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암소들의 재가 개인의 죄를 씻어 없애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지적해주는 것 같다.--아니죠. 개인의 도적인 죄는 오로지 속죄일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만 씻겨 질 수 있다.

타락한 상태의 모든 허물은 죽음과 접촉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매우 많다; 죽음과 접촉한다 함은 모든 유전으로 물려받은 체질상의 허약이나 결점을 의미 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을 깨끗이 하고 정하게 하는데 가 사용되게 되어있다.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의 경험(붉은 암소의 재)에 의하여 또는 경험(재를) 이용하여 모든 유전으로 물려받은 체질상의 허약이나 결점들에서 깨끗이 씻어준 천년통치 기간에 세상인류가 **아담의 죽음(원죄)**의 모든 더럽힘을 제거하기를--인간 완벽에 달하려고 --추구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적용 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깨끗한 장소에 쌓인 붉은 암소의 재와 마찬가지로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의 쓰라린 경험의 결과들은 축복과 교훈과 도움의 보고가 될 것이다. 왕국의 예하 "군왕들"을 세울 때 이 쌓여진 쓰라린 경험의 결과들로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은 세상인류를 회복하는 일에 조력할 것이다. 완전히 정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용서 받은 죄인들 각자는 반드시 물(진리)로 자기 자신을 씻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방백들"의 교훈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붉은 암소의 재를 뿌리는데서 상징되고 있는 이 교훈들은 이 계급의 경험들을 통하여 배운 믿음과 순종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상징한다. 출 12:22; 레 14:4,49; 시 51:7; 히 9:19

"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인가"

"값을 것 없습니까? 예, 조금도.
 줄 것도 없습니까? 예, 한 조각도.
 모든 필요한 주는 것과 값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청산할 것 없습니까? 모든 것이 갚아졌습니다.
 화낼 것 없습니까?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의 기쁨이요,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공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슴에는 그의 영광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평화는 가장 달콤하며 결코 실증 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나의 가슴을 기쁨에 넘쳐 샘솟게 합니다.

"죄는 없습니까? 예, 흠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그의 피가 하나라도 남게 할 수 있을 까요?
 나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에게도 나에게도 그 피는 귀중한 것이옵니다.

"나의 앞날은 어떨까요?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의롭게, 성스럽게 되고 영광을 차지할 때 까지는,
 그의 피로 구원하셨고 다음에는 영광으로 왕위에 앉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란히, 난 그의 신부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오? 오, 영광이 따르리다.
 땅은 아침 동틀 적에 기쁨에 넘칠 것이요.
 다스리고 축복하는 왕국과 군주가 내림하리니.
 그땐 슬픔, 죽음, 애통과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 8 장

다른 중대한 모형들

성막 뜰 기둥 -하얀 휘장 -은 갈고리 -성소와 지성소의 문기둥들 -금으로 입힌 상 -금 등잔 -깊은 것들을 보는 실상의 제사장들과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레위인들 -금 향단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것의 내용물과 그들의 의미 -속죄소 -두 그룹천사 -흠 없는 제사장 -만세에 숨겨온 비밀

앞의 기술에서 몇 가지 흥미 있는 세부들의 설명을 고의로 생략했다. 이 세부는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막의 일반적인 계획과 제사와 전형적 의미를 분명히 이해한 사람들에게 이제 잘 이해될 수 있다.

기둥들: "성막 뜰" 안에 서 있고 하얀 휘장들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의롭다 하심은 얻은 신자들을** 상징한다. --"성막 뜰"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얻은 상태를 상징한다. 기둥들은 썩기 쉬운 물질인 나무로 되어있다. 따라서 나무기둥이 상징하는 계층은 인간으로서 실제로 완벽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벽성은 일반적으로 구리로써 상징되었으므로 실제로 완벽한 인간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기둥들이 구리로 만들어졌거나 구리로 입혀졌어야 한다. 그러나 나무로 만들어 졌긴 하지만 기둥들이 구리 받침에 세워졌다. 이는 비록 실제로 불완전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완벽한 인간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얻음을** 이보다 명확히 상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하얀 커튼: 나무 기둥들로 떠 받쳐진 하얀 커튼은 "성막 뜰"을 이루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은 얻음과 순결을 잘 나타내준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세상 시선("진영")에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엄호임을 상징하는 한 세마포를 떠 받쳐야 한다.

은고리: 기둥들이 휘장을 떠받치는데 쓰이는 은고리는 **진리**의 상징이었다. 은은 일반적으로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성막 뜰" 안의 기둥들로 상징된 의롭다 하심은 얻은 신자들은 참으로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모든 불완전함을 덮어 가려 준다고 주장할 수 있다.(출 27:11-17) 또다시, 신자들이 자신의 **의롭다 하심은 얻은 신자들을** 상징한다. --"성막 뜰"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얻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도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문기둥들: 성막 입구 --"성소"의 "문"--에 있는 문기둥들은 첫 번째 "휘장"으로 덮여졌다. 그것들은 "성막 뜰"에 있는 기둥들과는 전혀 달랐으며,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합니다.--즉 헌신한 신자들을 상징한다. 성소의 문기둥과 "성막 뜰"의 기둥들 사이의 차이점은 의롭다 하심은 얻은 신자들과 거룩함을 얻은 신자들의 상태 사이의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가 **죽기로 헌신**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다.--즉 인간의 의지와 육적인 마음[첫 번째 휘장]을 소멸[통과]함으로써 "성소"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성소의 문기둥들은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어야 하며 그들은 그렇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문기둥들이 신의 본성의 상징인 금으로 덮여졌기 때문이다. 문기둥들이 구리 받침에 고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보배[신의 본성]를 질그릇에 가졌는지"를 나타냈

다.(고 후 4:7) 즉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아직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얻은 인간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얻은 인간성**위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의거하여 있다. 기억되겠지만, 이것은 "성소"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나 신분이 아직 완전케 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함을 발견한 것과 꼭 일치한다. 출 26:37

"지성소"의 문기둥들: "지성소"의 문기둥들은 두 번째 "휘장" 바로 안쪽에 있었으며, 육체(휘장)를 완전히 통과하여 영적인 상태도록 건설되었다. 이 기둥들은 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금으로 덮여졌다. 그러나 더 이상 구리받침이 아니라 --즉 더 이상 어느 인간 상태라고 좌우되지 않음-- 은 받침(실제, 진리, 진실)에 고정되었다. 이 두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할 것--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 출 26:32

금으로 입힌 상: "성소" 안에 진설병이 놓인 금으로 입힌 상은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일(빌 2:16) 봉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을 얻은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교회를 상징한다.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큰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주어진 영적인 상태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먹이고, 강화시키고, 밝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녀 자신을 예비하는 것이다.(계 19:7) 현재 시대에 이 세상에 증거 하는 일은 사실상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일이다. 이 세상의 완전한 축복은 복음의 시대가 끝난 (속죄일 실제의 희생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지정 된 때"에 뒤따라 올 것입니다.

금 촛대 혹은 금 등대: 금 등대는 금으로 입힌 "진설병의 상" 맞은편에 세워 놓고 "성소"안의 모든 것을 밝히는 금 촛대 혹은 금 등대는 정금 한 덩어리로 망치로 쳐서 만들어졌다. 그것에는 가지 일곱 개가 있으며 각 가지에 등잔이 얹혀 있어 전부 합하면 일곱 등잔이 된다. --일곱은 완전한 숫자이다. 이것은 예수님이신 머리로부터 신(금)의 본성에 참여자가 될 자들을 그분이 사람 가운데 취하시는 "적은 무리"의 마지막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하셨다.(계 1:20) -하나의 교회의 일곱 단계 혹은 일곱 단계의 발전은 소아시아의 일곱 회중에 의해서 상징되었다.(계 1:11). 이 촛대는 장자들의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참된 교회 -진리의 빛을 지니는 자들 -"왕 겸 제사장들"이다.

그것의 세공품의 모양은 아름다웠다.--열매와 꽃, 열매와 꽃이 다음에 잇달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열매를 잘 맺는 참된 교회를 나타낸다. 각 가지위에 있는 등잔은 아몬드와 같이 생겼다. 아몬드의 의미는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알게 될 것 입니다.[민 17:8,5]

이 등잔에서 발하는 빛은 "짙은" 혹은 정유의 올리브기름에서 왔고 등잔은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 이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었으며 그것의 빛은 신성한 밝힘--진리의 영--을 상징하였다. 이 빛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빛을 보거나 그 빛으로 덕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빛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고전 2:14) --심지어 레위인으로 상징된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에게도-- 전적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관해서 교회를 밝히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생각을 상징하였다. "왕 겸 제사장들"인, 진실로 헌신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소"에 숨겨진 더 심오한 빛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헌신한 몸인 제사장들은 언제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권리아자 특

권이었고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었다.(히 9:6) 레위 계급은 인간적 마음의 휘장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인간적 마음이 그들과 거룩한 것 사이를 가로 막기 때문이다. 인간적 마음을 치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인간적 뜻과 본성을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대제사장--아론과 그를 계승한 그의 아들들--이 등잔의 심지를 정리하고 기름을 다시 채웠다.(출 27:20,21; 30:8)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도 매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점점 더 채워주실 것이며, 낡은 본성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즉 등불의 심지를 통하여 성령이 작용함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실체 제사장과 실체 레위인들

왜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것들 이외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가? --즉 말씀의 더 깊은 영적 진리들을 분별하지 못 하는가? --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회복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알지 못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알려고 우리가 이따금 당혹해 하는가? 성막의 이러한 교훈들은 왜 그런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가족"의 형제들이긴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다. --온전히 헌신하지도 않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성막 뜰"에 있는 레위인들 이다: 그들은 그들의 인간의 권리와 특권을 희생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헌신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 계급만을 위해 준비된 것들을 볼 수도 없다. "기록 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등대의 빛]으로 이것을 우리에게[헌신함으로써 신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도록 불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숨겨진]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들어 내느니라]" (고전 2:9,10)

명목상의 교회는 항상 위선자들뿐 아니라--레위인들과 제사장으로 상징된--의롭다 하심을 얻은 계층과 거룩함을 얻은 계층 모두를 포함해 왔다. 사도 바울의 서신중에 몇 군데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계층(레위인)에게 말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갈 5:24) 따라서 바울은 그들 중 몇 사람만이 희생하라는--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복음의 부름에 응하였음을 함축하는 것 같다.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12:1) "그러므로 형제들아[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는 사람들--레위인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물로 드리라 [온전히 헌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진심으로 죄를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없는, 또는 거룩한 자들로 여기시어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자들과 그들의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 겸 제사장 반열의 완전한 택해진 수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의 속죄일(복음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이시겠다고 선언하셨다.

"지금은 **받아들이시는** 때이다." [사 49:10] --그와 같은 예물들이 받아들여지는 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희생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은 사신바 된 자기들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려고 -- 즉 헌신하려고 -- 추구하는 것이 항상 모두에게 유일한 합당한 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난 후에는 아무도 **죽기까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 새 시대와 새 시대의 법률들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한 희생은 불가능할 것이다.

초기 교회의 훨씬 더 큰 비율이 (오늘날의 혼돈된 "바벨론"인 현 세상적인 각종 분파 교회들은 훨씬 더 그렇다) 죽기까지 헌신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실체의 "왕경 제사장직"이 아니라, 성소에서 **봉사를** 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율법에 있는 전형을 뒤돌아보면 전형적인 봉사직분에 지정된 레위인들의 수는 8,580명이었는데 오직 다섯 제사장만이 전형적 희생을 드리는 것을 위해 지정되었다. (민 4:46-48; 출 28:1) 이것은 "그림자"의 다른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들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비율을 예증하시기 위해 뜻하신 것 같다. 비록 현재 교회의 숫자가 수백만에 이르지만, 위선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단지 1,700명 남짓 중에 한 명 정도만이 산 희생을 드릴 것으로 상상할 때(비록 적은 수지만, 모형에 따르면 정확한 확률임), 주님께서 왕국을 받을 자들("왕경 제사장직")이 "적은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 틀림없이 명백한 것 같다. (눅 12:32) 그리고 다섯 명의 제사장중 두 명은 태만과 불충으로 인해 사망의 상징으로* 멸망을 당한 것을 기억할 때 8,580명의 레위인중 3명의 제사장만이 있었으며 2,800명중에 1명의 비율이 됨을 우리는 발견한다. (눅 12:32)

우리는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인들도 "마음에 할례"를 -- 즉 "육체의 오물[죄들]을 벗는 것을" 행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성막 뜰"에 있는 물이 담겨 있는 구리 물두멍로 상징되어 있다. 그곳에서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들도 손을 씻었다. 또한 온순함과 온화함과 자비심 그리고 도덕심의 정신이 하나님께 헌신함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선천적으로 완전한 인간(**하나님의 형상**)에게 속하는 것이며 이따금 타락한 인간에게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빈번히 명목상의 교회에서 완전한 헌신의 증거로 간주되어진다.

*우리가 다음의 두 사실들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헌신하고 영으로 잉태된 새로운 피조물의 큰 비율이 필요한 마음의 높은 표준이 이르지 못하여 따라서 무슨 단계의 생명을 수여받을 가치가 없게 될 것이 아니라 둘 째 사망으로 떨어질 것을 전형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닐까 생각 하게 된다; --(1) 어느 단계에서든 영생을 **수여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서 요구되는 성품의 높은 달성과 (2) 얼마나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생활에 지배하는 원칙으로 **완전한 사랑**을 꾀한다고 얼마쯤 진실한 고백을 한다는 사실.

우리는 정치적 혹은 도덕적 개정의 좀 선한 일을 하는데 자제 금욕을 실시하는 신자들을 본다. 심지어 이것도 하나님께 헌신한 증거는 아니다. 이것은 **일에** 헌신한 증거이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어느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당신의 뜻, 당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이다**"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나타내신 계획에 일치하게 주님과 주님의 봉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막 안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다. 제사장들만이 그것들을 볼 수 있다.

레위인들은 성막의 내부의 것들이 묘사된 것을 그들이 들은 만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숨겨진 빛과 아름다움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임재의 빵"을 전혀 먹어 본 적이 없다; "금 향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전혀 피운 적이 없다. 이러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휘장"을 통과해야 한다.--즉 속죄일 간에 희생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해야 한다.

금 향단: "성소"안에 있는 금 향단은 현재 희생하는 상태에 있는 헌신한 교회인 "적은무리"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제사장들의 자진적인 산 희생-- 이 오른다: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자진적인 순종, 등,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피우는 자들은(벧전 2:5) 그들의 아버지께 아주 가까이 온다.--즉 "지성소"와의 경계인 "휘장" 에 가까이 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청구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청구들)은 향기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많은 향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계 8:3)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향을 항상 태우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요 11:42)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인 하위제사장들도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향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리면, 그들의 기도도 항상 들어주실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언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도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우리가 "**그릇된 목적으로 청**"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 있지 않은 청구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청구와 기대들에 대한 지침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이 성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전형을 통하여 "지성소"(완전하고 거룩한 상태)의 영광에 대한 어떤 것을 배웠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다.(딤후 6:16) 그러나 거기에 "왕경 제사장직"인 그리스도의 전체 몸의 편에서 향을 드리는 것이 끝나고 그 향기의 구름이 그들을 앞서 여호와가 계시는 곳으로 들어갈 때 신의 본성에 참여자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마침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드려져서 그들은 "휘장" 저쪽에서 살게 된다.

지성소의 내부

언약궤: 언약궤 혹은 "증거 궤"는 지성소에 있는 단 하나의 기구였다. (히 9:2-4 **디아글롯** 각주 참조) 그것의 이름이 하나님의 창조 태초 전에 --그의 계획이 조금도 진전되기 전에 --몸소 마음속에 의도하셨던 여호와와 그의 계획의 진수를 예증 하였다고 암시해준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즉 "숨겨진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와 몸) 안에서의 인류를 위한 풍성한 은혜와 그의 미리 알려지신 조정--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의 본성에 참가자가 되고 권세와 영광 --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과 우리의 주님과 그분의 몸의 모든 구성원들의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 --을 얻게 될 "적은무리"인 그의 신부를 상징한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언약궤는 영광스럽게 된 교회에게 주어진 신의 본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덮여진 직육면체의 상자였다. 언약궤는 율법이 쓰인 돌과(신 31:26)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민 17:8),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향아리(출 16:32)가 들어있다. 율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조건들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시게 되나 하는 것과, 또한 예수께서 율법의 집행관으로서 사법적 권위를 갖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

율법의 의의가 실제로 우리의 머리 안에서 완수되었고 "육신을 좇아 행하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새로운 정신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롬 8:1,4).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는 옛 성미의 결점들은 우리의 상응하는 대속물의 값으로 한번 덮여지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한 다시는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의 의가 우리들에게 이루어 졌다"고 기록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행로의 목적(완전성)이 우리에게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의 완전을 좇아 혹은 향하여 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이르게 되면 언약궤로 상징된 "지성소"에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언약궤의 내용물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는 "왕 겸 제사장"의 구성원들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몸의 뽑히는 성품을 표시한다. 민수기 17장을 읽어보면 꽃이 핀 지팡이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전형적 제사상 직인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중재자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여호와와의 받아들여심이라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는 "왕 겸 제사장직" --그리스도 머리와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상징하였다. 지팡이에는 꽃이 피고 아몬드(살구) 열매를 맺었다. 이 아몬드 나무의 특성은 나무의 잎이 나기 전에 열매의 싹이 튼다. "왕 겸 제사장 직" 경우도 그렇다: 그들은 신앙 고백의 앞서가 나타내기 전에 희생한다. 즉 **열매**를 맺는다.

* 성경 연구 1권 5장

만나 담은 금 향아리: 만나 담은 금 향아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물들 중에 하나로서 불멸성을 상징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계 2:17)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의심할 바 없이 불멸성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생명 유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공급된 산 떡(요 6:51)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떡의 공급을 매일 굶어모으는 것이 필요하였고, 그러지 않으면 모자라거나 굶어죽는 것 같이 온 세상도 그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과 은혜의 양식을 언제나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름부음 받은 몸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다른 독특한 종류의 만나 --"숨겨진 만나" --를 특별히 제공 하신다. 금 향아리에 담은 만나의 독특한 점은 **썩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씨"(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약속 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상태를 잘 예시해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유지시킨 만나는 썩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 그러모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 될 순종하는 모든 인류는 영구한 생명을 실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건적이고 공급되고 새롭게 된 생명이다. 반면에 현재의 불리한 상태에서 충실한 "이기는 자들"인 "적은 무리"는 썩지 않는 뭉--즉 불멸성이 주어질 것이다.* 계 2:17

결론적으로, 금 언약계에는 신성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영광이 상징되었다: 꽃이 핀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 된 제사장직을, 율법이 새긴 두 돌 판은 공의로운 재판관을, 금 향아리에 담은 썩지 않는 만나는 신의 본성인 불멸성을 표시한다. 이 언약계 위에 덮는 뚜껑 혹은 머리를 구성하는 것은 "속죄소"였다.

"속죄소": 속죄소는 정금으로 된 판이며,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룹(사라빔) 둘을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금방이라도 날려고 하는 것처럼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 중앙을 향해 바라보하게 만들었다. [속죄소는 궤위에 얹혀 놓인다.] "속죄소" 위 이 두 그룹들 사이에 광채 나는 빛은 여호와와 임재를 나타내었다.

언약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듯이 속죄소와 영광의 빛과 그룹은 합치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였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고전 11:3) 그리스도 경우에 그랬듯이 여호와 경우에도 그렇다. 그(여호와)는 그의 품성의 특성을 예증하는 것들로서 여기서 상징되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 같이 "세카이너 영광" ["Shekinah glory,"]이라고 불리는 빛은 우주의 빛으로서 여호와 자신을 상징하였다. 이 사실은 성서에 의해서 많이 증명되고 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시 80:1, 삼상 4:4, 삼후 6:2, 사 37:16

인류는 여호와와의 면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론에 의해서 상징된 머리와 몸인 왕 겸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의 면전에 나타날 수 있기 전에 "신의 본성에 참여자"인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한다. (인간성은 십자가에 못

* 성서연구 제 1권, 185쪽

을 박아 묻어 버림으로써)

"속죄소"(또는 화해소가 더 적절함. 왜냐하면 신의 공의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화해해주는 희생들의 피를 대제사장이 그 위에 드리기 때문)라 불리는 정금 판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적인 원칙인 **공의**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89:14; 욥36:17; 37:23; 사 56:1; 계15:3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26 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할 때 속죄소나 화해소를 그리스 단어(**힐라스테리온**)로 사용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혹은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롬 3:25,26) 이러한 사상은 앞서 설명한 내용들과 일치한다. 공의, 지혜, 사랑, 권세는 이 모든 것에 의하여 인간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특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여 인류에게 **대표되심**을 기뻐하신다. 따라서 전형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인류에게 여호와와 공의와 지혜와 사랑 그리고 권세의 살아있는 대표자였다. --즉 신의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중보의 살아있는 대표자였다. 비록 신의 존재가 휘장에 가려져서 인간의 시야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신의 속성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어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속죄소로서 이 시대의 종결에 인류에게 가까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신의 은혜의 풍성함과 영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두 그룹: 두 그룹천사는 그의 말씀에 나타내진 대로 여호와와 품성의 두 가지 속성, 즉 신의 사랑과 신의 권세를 상징한다. 근본 원칙인 공의와, 같은 질이나 본질의 사랑과 권세와, 그리고 공의에서부터 높이 올려 퍼진 이러한 속성들은 완전한 조화되어 있다. 그들 모두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이다. 사랑도 권세도 공의가 충족되기까지는 행사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은 돕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고, 축복하기위해서 나른다. 그들은 날개를 펴고 금방이라도 나를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언제 나를까를 알기위하여 "속죄소" 중앙(공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 희생들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가까이 했을 때, 피를 두 그룹 위에 뿌리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 신의 권세도 신의 사랑도 독립적으로 희생들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피를 두 그룹에 뿌릴 필요가 없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롬 6:23]라고 말한 것이 공의였던 것 같이,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대가**를 주셨을 때 그것은 공의에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속죄소" -**화해소**-- 에 피를 뿌리는 의식의 적절함을 본다.

* 공동 번역판의 번역자들에 의하여 **hilasterion**을 "화해제물"로 오역했다. 만족을 의미하는 단어 **hilasmos**는 정확히 "화목제물"로 번역되었다. 요일 2:2, 4:10

사랑이 모든 구속의 계획의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의에 상응하는 대속물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내내 구속을 준비하느라고 활약해 오고 있다. 그렇다. "창세전부터" 뵤전1:20

**"사랑이 먼저 길을 고안하였음
반역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일 희생(수소와 염소)가 완성되었을 때 사랑은 그 계획의 결과들을 보기 위해서 기다린다. 피가 뿌려질 때 공의가 외치기를 그만이다; 다 이루어졌다!" 그때에 사랑과 권세가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그들은 재빨리 **구속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날라 간다. 공의가 만족될 때 권세는 사랑과 같은 시간에 걸쳐 같은 매재자 --그리스도, 언약궤 혹은 신의 은혜의 금고 --를 이용하여 심부름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 **신**의 가족 --뚜껑에 의해서 상징된 아버지와 언약궤에 의해서 상징된 아들과 그의 신부 --의 관계와 통일성은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고, 그러므로 "속죄소"가 언약궤의 한 부분(머리)으로 언약궤와 일치될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인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전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고전 11:3)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통일성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 그래서 ...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9,21

흠 없는 제사장 레위기 21:16-21

눈이나 손이나 코나 발이나 혹은 어느 부분에 어느 흠이 있는 제사장직 구성원들은 아무도 제사장직(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 더 많다든지 하여 다지증을 가지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실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은 완전할 것이라는 것-- 아무 부족함이 없이 --과 또한 "적은무리"는 수가 하나 더 많거나 하나 더 적지 않고 정확하게 예지되고 예언된 수일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스도의 몸이 일단 **완성**되면, 거기에는 첨가가 --즉 다지증이--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특히 구성원들이 되도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받아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상을 얻도록 달음질함으로써 ("적은무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한다. 만일 누가 부주의하여 상을 놓치면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상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몸이 완성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족할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다. 주의하여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3:11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왔다"

--골로세 1:26--

성막의 광채와 아름다움--금으로 된 벽과 금으로 입혀지고 아름답게 세공된 가구 그리고 공교한 작품의 휘장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덮이고 숨겨진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었다; 심지어 바깥쪽에서 햇빛조차 완전히 차단되었고--그것의 유일한 빛은 성소의 램프와 지성소의 세키나의 영광 뿐 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막의 제사들에서 받은 교훈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전형과 그 아름다움을 휘장과 가공되지 않은 생가죽 아래 감추신 것 같이 영적인 것의 광채와 아름다움은 오직 현신된 조건--"왕 겸 제사장 직"--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보여 진다. 이들은 세상과 성막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그러나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간다. 제사장들의 영광스러운 희망과 **새로운 피조물들**로서의 위치는 그들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숨겨져 있다.

"아, 이들이 왕의 계열에 속하는 자들이노라.

모두 한 왕의 자녀들이니.

신의 불멸성의 면류관의 상속자들이도다.

보라. 그들은 기뻐 노래하도다!

"왜 그들은 그렇게 천하게 보이는가?

왜 그들은 이리 경멸을 받느냐?

그들의 화려한 예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로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도다."